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세상을 살며 불안과 걱정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2020년 여름 한 가운데 있지만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은 더욱 굳건해지게 하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전에 성일을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발하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www.chpress.net

주후 2020년 8월 1일 (토) 제 1787호

□ L.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미국인 64% 현장예배 참석 불편하게 여긴다

RNS 보도, 공공정책연구기관(AEI) 설문결과 정당별 인종별 교파별 큰 차이

공공정책연구기관 '아메리칸 엔터프라이즈 인스티튜트'(AEI)가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미국인 중 약 64%가 현장예배 참석에 대해 '매우' 또는 '어느 정도'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Survey: Most Americans are not ready to return to in-person services). 백인 복음주의 크리스천을 제외한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아직까지 현장예배 참석을 불편하게 느끼는 것

으로 조사됐다. 이를 반영이나 하듯이 출석교인 38,000명의 조지아 주에 있는 노스포인트커뮤니티교회(담임 앤디 스탠리 목사)는 2021년 어느 시점에 가서야 현장예배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바나리 서처에 따르면 현재 5%의 담임 목회자들은 노스포인트커뮤니티 교회 방침에 동조하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5월부터 6월 초까지 미 전역에서 성인 3,5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다.

시점 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부터 '당장' 교회에 배 재개를 허용하라고 주지사들을 압박하고 일부 교회들이 현장예배 재개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일반 교인들 사이에서는 아직 코로나19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음을 보여준 설문조사 결과다. 현장예배를 재개했다는 교인 응답자 중에서도 약 56%는 현장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며 여전히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냈다.

대니얼 룩스 AEI 조사원은 "평신도들 중 상당수가 현장예배 참석에 다소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현장예배에 참석해야 할지를 망설이는 교인도 많다"고 발리스 프레스와 인터뷰에서 설명했다. AEI의 이번 설문조사는 코로나19 2차 확산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 전인 5월 말과 6월 초 미국인 약 3,504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정당별, 인종별, 교파별로 현장예배에 대한 반응이 크게 다른 것으로도 나타났다. 가족이나 자신이 코로나19에 감염될 것이 걱정된다는 반응은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는 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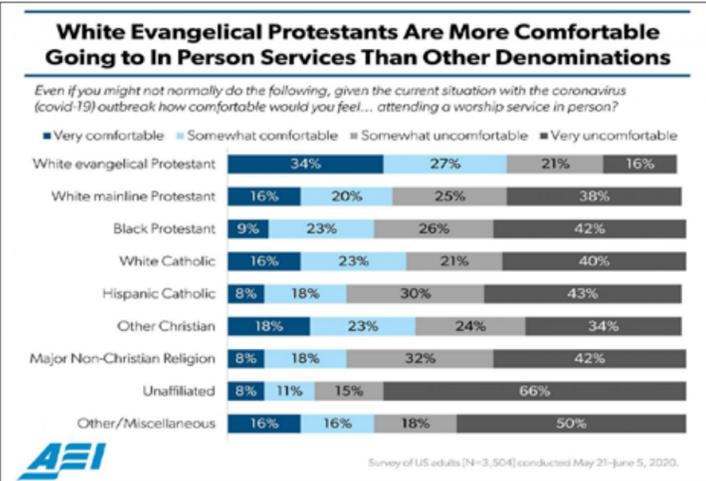
72%로 매우 높은 반면 공화당 지지자 중에서는 약 43%로 다소 느긋한 반응을 보였다.

교파별 현장예배 참석과 관련된 질문에서는 백인 복음주의 크리스천들이 가장 낙관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백인 복음주의 크리스천 중에서는 약 61%가 현장예배 참석이 '매우' 또는 '어느 정도' 편하다고 답했다. 이 중 남성의 현장예배 참석에 대한 낙관적 반응이 약 71%로 여성(약 51%)보다 훨씬 높았다.

백인 복음주의 크리스천을 제외한 나머지 교파는 현장예배 참석에 여전히 조심스러운 입장이었다. 백인 주류 개신교인 중에서는 약 36%, 흑인 개신교인 중에서는 약 32%, 백인 카톨릭 신자 중에서는 약 39%만 현장예배 참석에 큰 문제가 없다는 생각을 밝혔다.

한편 기독교를 제외한 나머지 종교교인들 중에서는 약 26%만 현장 종교집회 참석을 편하게 여긴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최근 현장예배를 통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보고되면서 현장예배 참석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오리건 주 북동부 지역의 한 교회의 현장예배 참석교인 중 약 230명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된 것으로 보고됐다. 오리건 주에서 발생한 감염사례 중 규모가 가장 큰 사례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에서 미국인 중 약 54%가 내년까지 코로나19 이전과 같은 정상생활로 돌아가기 힘들 것으로 본다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종교 집회뿐만 아니라 스포츠 행사, 외식, 극장 방문과 같은 활동에도 불편함을 느낀다고 답했고 약 45%만 투표소 방문이 편하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한편 연방대법원은 최근 네바다 주에서 카지노처럼 현장예배를 재개할 수 있도록 청원한 교회의 요청을 5-4로 부결했다(Supreme Court Rejects Nevada Church's Appeal to Reopen Like Casinos). 문제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예배당 인원을 50명으로 제한시켜 예배하라는 주 정부 지침에 교회 측이 수정헌법 1조항 위반이라며 침해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미치 매코널(왼쪽) 의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대선, 공화당 뚜렷한 슬로건이 없다

허프포스트 11월대선 상황 보도, 민주당은 트럼프 깎아내리기

11월 대선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운동 메시지가 매일 같이 변하고 있는 지금, 공화당 의원들 역시도 당의 핵심 슬로건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선거가 불과 약 10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트럼프와 공화당은 엉망진창이다. 어떤 날은 경제(또는 코로나바이러스 이전의 경제)를 자랑하다가 또 어떤 날은 "법과 질서"(시위대를 진압하는 경찰을 추켜세우는 것과 같은 문화전쟁의 완곡한 어법)를 내세운다. 그러다가 또 어떤 날에는 '사회주의' 민주당과 '자유'의 공화당이라는 오랜 고정관념을 무기로 꺼내들기도 한다.

트럼프는 민주당의 대선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조 바이든을 겨냥한 몇 가지 네거티브 공격들을 시험했다. 그는 계속해서 그를 "졸린 조(Sleepy Joe)"라고 지칭했는데, 그가 생각하는 것만큼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바이든의 부패혐의를 캐내려고 했지만 트럼프 정부의 부패를 스스로 드러내야 할 말을 뱉었다. 최근 트럼프는 바이든이 노망든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했지만 그럴수록 자신의 인지능력에 대한 의문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Republicans Struggle To Find A Re-election Message: Democrats plan to run on Trump's bungling of the coronavirus. Republicans are hoping people will have amnesia).

의회의 공화당 인사들에게 "공화당의 핵심 대선 메시지가 뭐냐"고 물어봐도 통일된 답을 듣기는 어렵다. "글쎄요, 재선 선거운동 메시지를 뭘로 할 건지는 대통령이 결정하겠죠."

(3면으로 계속)



2면 발행인 칼럼 김성국 목사



3면 시론 김인환 목사



16면 팬데믹 시대의 선교... 이종희 목사

월드 미션 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퍼스 | 온라인
www.wmu.edu | 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성경말, 성경대, 그리고 자녀들의 상한 마음치유를 돕고자 하는 모임입니다.
한부모 가정 모임
LA 비전교회 협력사역
520 S. Lafayette Park Pl #200
213-386-9191, 949-627-1452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전품목 50% 할인판매
www.chpress.net | 323-737-7699, 800-669-0451
1027 J. Western Ave., #2 L.A., CA 90006

영적 성장을 도와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사
교회 음향, 동시통역기, 성가곡집 주문 제작, 타월, 선물 주문 제작
TEL: 714.530.2211 | Fax: 714-530-8080 | biblestore@gmail.com
9838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2020년 제5회 PGM 선교사집중훈련

전문인선교사를 모집합니다!

훈련일정

- 1차 (수료대상): 8월 13일(목)~21일(금) 오후 7시~10시 (미국 동부시간)
선교의제4모듈, PGM 7대핵심가치 (성령충만중심, 디아스포라중심, Here & Now 중심, 전문인중심, 지역교회중심, 지역교회설립중심, 땅끝중심 선교), QT, 난민선교, 삶의 선교, 웨일즈선교, 전문인선교 사례 (농축산), 히스패닉사역
- 2차 (파송대상): 8월 13일(목)~28일(금) 오후 7시~10시 (미국 동부시간)
1차 훈련 및 선교사의 정체성, 필라도심선교, 영적전쟁, 인도네시아선교, 1대1 제자양육, 전도훈련 등의 선교사 집중훈련

훈련장소 온라인 훈련
훈련대상 스포츠, 교육, 의료, 미용, 캠퍼스, 영상, 어린이, VBS, 청소년, 공휴, 건축사역 등의 전문인선교사
등록비 개인 \$50 / 부부 \$80
등록기간 7월 31일(금)
문의문의 admin@pgmusa.org / www.pgmusa.org / 610.397.0484

강사진

 호성기 목사 PGM 국제대표 필라 안디옥교회	 고훈 목사 PGM 정책이사장 뉴욕 하안교회	 김은범 목사 PGM 정책이사장 사령의콜로넬비전교회	 안사무엘 목사 PGM 실용부장	 고대은 목사 Antioch All Nations Church	 양춘언 목사 Antioch Spanish Church	 김영민 목사 PGM 한국본부장
 Rev. Gus Kim Grace Church	 Jay Kim 전도사 PGM 영어계 훈련부장	 이민재 선교사 PGM 훈련담당	 박상수 선교사 PGM 선교사 (교육/강사전문)	 정준영 선교사 PGM 선교사 (지역교회/강사전문)	 폴현 선교사 PGM 선교사 KCBMC 사무총장	 John Park PGM 선교사 (어린이/VBS전문)
 김현영 선교사 PGM 순회 선교사 (농축임/수외전문)	 이태후 선교사 PGM 선교사 (도시민민/공물전문)	 양용태 선교사 PGM 선교사 (그리스, 난민전문)	 조영태 선교사 PGM 유럽본부장 (웨일즈선교)	 함춘환 선교사 PGM 선교사 (인도네시아, 교회개척)	 David Kim PGM 선교사 (U.K, 제자양육전문)	 Susan Kim PGM 선교사 (U.K, 제자양육전문)



케냐 제자양육 및 우물전문사역 | Antioch Spanish Church가 개척한 멕시코교회 | Antioch All Nations Church | 인도네시아 공물전문사역 | 웨일즈 VBS/Youth 전문사역

발행인 칼럼

그대, 불이 켜져 있는가?



김성국 목사 (린즈장로교회 담임)

“하나님의 진리등대 길이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그대, 불이 켜져 있는가?”

돌아보곤 하였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 매일 일정량의 기름을 공급받아 등을 밝히던 등대가 있었다. 그 마을에 아들이 급히 입원하게 된 사람이 등대지기를 찾아와 기름을 팔아 자기의 어려움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날 밤 예배에서 나는 나의 정체성을 확실히 했다. 그와 연관된 이야기와 노래에서 나는 나를 찾았다. 나는 세상을 밝힐 빛이라는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게 된 것이다.

어두움을 물리칠 힘은 빛 밖에 없다. 세상을 어둡다. 그 세력은 크고 강하다. “그대, 불이 켜져 있는가?”

그렇다. 지금은 너무 어두운 때이다. 캄캄하다. 어디가 길인지 알 수 없다. 교회가 잠자고 있으면 누가 절망의 땅에 희망의 빛을 비추겠는가.

“삶과 개혁주의 신학 조화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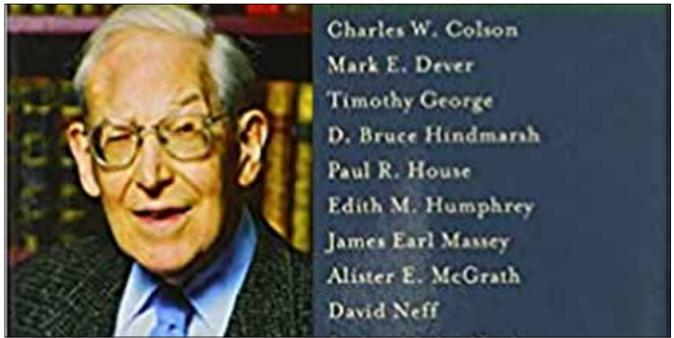
CT, 복음주의적 삶의 신학자, J.I. 패커 소천 통해 그의 신학적 유산 정리

많은 사람에게 제임스 패커로 더 잘 알려진 제임스 인셀 패커는 이 시대 저명하고 영향력 있는 복음주의 지도자 중 한 사람으로 지난 7월 17일 93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역사가들이 J. I. 패커의 생애를 돌아볼 때, “J. I. 패커와 복음주의의 미래 (J. I. Packer and Evangelical Future)”는 유용한 출발점이다.

책에 실린 글은 대부분 저자들이 2006년 비스신학교 컨퍼런스에서 강연한 내용들이다. 컨퍼런스를 조직하고 책을 편집한 비스신학교 티모시 조지 학장은 “이 에세이들이 모자이크처럼 담겨나가는 패커의 생애와 사상의 주요 측면들을 통해 복음주의 교회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배우고, 복음주의 교회가 당면한 기회, 위험, 혼란, 방향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패커가 사랑했던 청교도에 친숙한 독자는 책 곳곳에서 존 번연의 “천로역정”의 메아리를 들을 수도 있다. 페이지



패커의 유산을 되새겨보았다.

그들의 결론에 따르면 이 성공회 학자는 근본적으로 “삶의 신학자”, “현대판 교리교육자”, 그리고 이레나이우스, 아우구스티누스, 칼빈, 백스터, 오웬의 전통에서 있는 개혁주의 선지자 (Packer, Unpacked: Timothy George attempts to interpret the great 'theologian')라고 크리스치아니티투데이(CT)는 보도했다.

도들의 성들을 급습해 확보한 보화를 다수의 가난한 복음주의자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다. 패커가 재분배한 보물의 목록이 바로 그가 1952년 7월부터 출간한 저작목록이기도 한데, 이 책의 부록에

라고 말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도 존 오웬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이루어진 죽음의 죽음(The Death of Death in the Death of Christ)”에 붙인 서문에서도, 패커는 자신의 글에 담은 삼위일체적 구조와 십자가 중심성, 거기에 스며든 은혜의 특성을 독자들이 읽고 음미하고 익히고 흡수하기를 바란다. 패커는 열

복음주의 미래에 남긴 유산: 기독교신학이 송영, 겸손, 관대함, 정직, 인내, 생명력, 연대와 연결됨 더 잘 알게 해

“하나님중심으로” 구원진리 접근, 십자가에서 이뤄진 구속과 무관한 설교금지

를 넘기다 보면 ‘해석자의 집’을 거니는 듯한 기분이 든다. 각 에세이가 중요한 신학적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책 속에는 이 외에도 천상의 도시로 향하는 순례자들에게 하나같이 꼭 필요한 교훈들로 가득하다.

패커는 인간중심주의를 피하고 당당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구원의 진리에 접근한다. 그는 성경무오와 성경의

으로 신학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목회적 기능”이라고 한결 같이 주장한다.

루스 힌드마쉬는 과거에서 보화를 캐내 현재를 새롭게 하는데 사용하는 패커의 방식을 “공적 사역의 로빈후드적 특성”이라고 부른다. 패커는 옥스퍼드 재학시절 C. S. 루이스를 통해 접한 ‘온고지신’의 모델에 따라 옛 것을 무조건 배척하는 속물근성을 뛰어넘어 시대를 초월하는 지혜를 추구한다.

가톨릭 신(漸)신학 신학자들이 신학적 지혜를 얻고자 그들의 과거를 파헤쳐가던 시기에 패커는 17세기 청교

실려 왔다.

은혜의 교리들은 패커에게 가장 중요한 중심주제였는데, 성경의 언약적 주제들에 특히 민감한 그의 성경해석 방법에서 이 부분이 잘 드러난다. 따라서 패커의 견해에 따르면, “구약성경은 바울(로마서와 갈라디아서)과 누가(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마태, 히브리서 기자가 제공하는 해석학적 안경을 통해 읽어야 한다.”

패커는 이런 해석학적 원리를 제자도에 적용하면서 “개혁신학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그리스도다운 성품을 가져다줄 더없이 건전하고 심오한 신학”이

정이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인내를 잃어서 안 된다고 본다. 지혜로운 순례자는 복음을 섬기는 일에 곧장 달려들고 싶은 마음을 누르고 진지하고 신중한 태도로 먼저 뒤를 돌아본 다음, 하나님의 계시에 담긴 패턴들을 분석하고 평가한다.

이런 모습은 매우 당연한 신학적 자세다. 기도와 성경연구로 주님의 뜻을 참음성 있게 받들지 못하면 내세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할 것이다.

패커는 계시를 분석해 얻은 원리에 충실하고자 가르치는 일을 선택했고 여러 사업에도 참여했다. (3면으로 계속)

할렐루야 백화점
성경/기독서적/일반서적/베스트셀러/성구/성화액자/가운/교회용품/영문성경/영문기독서적
교회·사업체·달력·기념패전문
뉴욕 Tel. (718) 762-0011 뉴저지 Tel. (201) 346-0030
www.bestsaver.us 917-863-0301

The Korean Christian Press
www.chpress.net
기발한 광고의 주인공이 되세요
광고문의: 347-223-1531 chpress.kjs@gmail.com 718-886-4400 info@chpress.net

Joon Mo Myung, MD 명준모 위장간 내과
진료과목: -무통 위 내시경, -무통 대장 내시경, -조기 위암, 대장암, 식도암 진단, -B형, C형 및 각종 간염 진단/치료, 알코올성 간염, 간 조직검사, 지방간, -각종 소화기 질환, -최신 특수검퓨터 비디오 내시경 시술
메디케어 및 각종보험 취급
Tel: 718-445-0200 Fax: 718-445-0226
154-08 Northern Blvd., Suite 2K(154가 노던 코너) Flushing, NY 11354

베데스다치과 Bethesda Dental
예약문의 646.422.7330 201.431.9753
의사: 이규성 원장
진료: 안, 내 - 저아이스(임플란트), - 구강외과, 틀니, - 보철치과, - 미용성형치과, - 신경 및 잇몸치료
353 Lexington Ave, Ste 1600-2 New York, NY 10016

웨딩, 장례식 전문 사랑을 전합니다
Florist 나비꽃집 NABI
대표: 장효종(뉴욕 크리스천 코럴)
718-286-9920 email: floristnabi@gmail.com 44-29 Douglaston Parkway Douglaston, NY 11363

2020대선, 공화당 뚜렷한 슬로건이 없다!

(1면에서 계속)

언변이 뛰어난 공화당 의원 중 하나인 톰 콜 하원의원(오 클라호마)이 최근 허프포스트에 말했다. 그는 선거가 100일도 채 남지 않았다는 것을 크게 걱정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대선 선거운동 메시지가 크게 3가지를 중심으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했다. 경제 재건, 코로나바이러스 이후의 원상회복, 바이든과의 차별점 강조가 바로 그것이다.

“바이든은 역대 가장 강력한 민주당 후보다” 콜 의원이 말했다. 그는 곧 나올 선거운동 메시지를 어떻게든 요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내가 한 일은 이렇다. 앞으로 내가 할 일은 이렇다. 다른 후보가 대통령이 될 준비가 안 돼 있는 이유는 이거다.” 하지만 그런 식의 메시지를 소화하려면 능력과 집중력이 있어야 한다. 트럼프에게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들이다.

트럼프는 최근 폭스뉴스 손해너티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집권 2기가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경험과 재능을 장황하게 설명했고, 이제 자신은 워싱턴 정치를 더 잘 알게 됐다고 했다. “저는 그 전까지 한 번도 이걸 한 적이 없어요. 워싱턴에서 잠을 자본 적도 없었고요. 제 기억에 워싱턴에는 17번 왔던 것 같네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미국 대통령이 된 겁니다.” 또 트럼프는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 같은 명칭이”를 쓰는 일은 앞으로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공화당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지난 5년 동안 트럼프의 실체를 외면해왔다.

그들이 그런 가면놀이를 포기할 생각은 없어 보인다. 다수의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가 받아들였으면 하는 메시지들을 언급했다.

앤디 바 하원의원(켄터키)은 이번 선거가 “자유로운 기업 활동, 자유, 자유 대 사회주의의 대결”이라고 말했다.

글렌 그로스먼 하원의원(위스콘신)은 “미국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선거운동의 핵심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랜디 웨버 하원의원(텍사스)은 이번 선거가 “미국을 안전하게 만드는” 일”에 대한 선거라고 주장했다.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벌어지기 전까지, 트럼프의 재선 선거운동 메시지는 경제가 될 것이 유력했다. 트럼프 정부에서 미국은 최저 실업률을 기록했고, 주식시장은 최고점을 찍었다. 그러나 경제 지표들은 빠르게 추락했다. 실업률은 10%대를 기록하고 있고,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신속한 경제 회복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다.

몇몇 공화당 의원들은 유권자들이 트럼프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실패를 그저 외면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저라면 가장 간단한 메시지를 전달할 겁니다. ‘코로나19 이전의 경제가 어땠는지 기억하라’는 거죠.” 마이크 브라운 상원의원(인디애나)이 최근 허프포스트에 한 말이다.

또 다른 공화당 상원의원인 톰 킬스(노스캐롤라이나)는 최근 이와 비슷한 말을 했다. “이번 선거에는 정말 많은 게 걸려있습니다. 하지만 왜 우리가 이길 거라고 제가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지난 2월만 해도

삶이 얼마나 좋았는지 기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브라운 의원은 한 걸음 더 나갔다. “사람들이 그 기억들을 되살리도록 해야 합니다.” 그가 말했다. “그 기억이 흐릿해졌어요.”

경제가 얼마나 좋았는지 기억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공화당 의원들의 주장은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2000만명 넘는 사람들이나 7월치 주택 자금을 납부하지 못한 미국인의 3분의 1에게 그리 큰 위안이 될 것 같지 않다.

민주당은 ‘좋았던 과거’ 대신 ‘좋지 않은 현재’를 유권자들이 기억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민주당의 선거운동 메시지의 상당수는 트럼프 정부의 미흡한 코로나19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진단검사 부족 사태, 선부른 경제활동 재개, 마스크와 사회적 거리두기 거부 등이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권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도 바로 이런 문제들이다.

7월 초 조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3가지 이슈’가 뭐냐는 질문에 유권자들은 건강보험(46%), 경제(44%), 코로나바이러스(36%)라고 답했다.

이 세 가지 이슈들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모두 서로 연결돼 있다. 민주당은 ‘상식의 회복’과 연관이 있는 것들이라고 보고 있다.

도마크 포칸 하원의원(위스콘신)은 민주당의 대선 메시지가 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WTF(XX 이게 뭐임).”

포칸 의원은 누구나 트럼프에 대해 “WTF”하는 순간이 있었을 거라고 분다고 말했다. “이건 완전 정상이 아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들 중에서 트럼프의 태만이 이것(코

로나19 유행)을 초래했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하원의원(뉴욕)도 비슷한 얘기를 했다. “민주당의 대선 메시지는, ‘트럼프는 이 나라에 불을 지르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는 거다.”

그는 공화당을 “가장 뽀뽀 뭉치게 만든 메시지”들은 “인종주의, 제노포비아, 여성혐오”였다고 했다. 그러나 서민들을 위한 경제지원책을 거부하고, 과학자들과 공중보건 전문가들이 시민들 앞에 나서는 것을 가로막고, “그들의 결정 때문에 10만명 넘는 사람들이 사망”한 상황에서 그와 같은 고전적인 수법은 먹히지 않을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다른 민주당 의원들은 보다 전통적인 조언을 내놨다. 벤 레이 루한 하원의원(뉴멕시코)은 처방적 약값 인하나 건강보험 확대 적용 같은 “민생 이슈”나 “전면적인 정부 개혁” 같은 문제들을 길게 언급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에게서 가장 흔하게 들을 수 있었던 대답은 트럼프의 코로나19 대응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원 정보위원장을 맡고 있는 애덤 시프 하원의원(캘리포니아)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로 “코로나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능력과 분래의 모습을 회복하고, 경제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미국 가정들을 돕는 것”을 꼽았다. 그는 민주당이 이번 위기를 “구조적 불평등과 인종주의, 부정”을 해소하는 계기로 삼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히 무오하기 때문에 온전히 신뢰할 수 있다고 장담할 것이다.

패커는 그런 방식으로 성경에 대해야만 순종이나 제자도를 말하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주장한다. 그는 여러 책에서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대변자”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God Has Spoken)”가 대표적인 저서다.

우리는 성경의 진리됨과 권위에 이끌려 그 중심 사건인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에 이르고 끊임없이 그것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11면으로 계속)



시론

하나님을 팔아먹고 사는 자들



김인환 목사 (전 총신대 총장)

모 신문 칼럼니스트가 여성을 이익과 득표의 무기로 쓴 사람들을 빗대어 여성을 팔아먹고 사는 여자들과 남자들이라고 지칭했다. 이러한 여자들과 남자들은 페미니스트로 자처한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자신의 비서를 성추행한 사실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는 역시 페미니스트로 자처한 문재인 대통령과 이에 대해 설명한 장 내고 입을 닫은 일부 여성단체들과 그들이 배출한 여성 국회의원들을 지칭한다. 지난 한국의 4.15선거 이후 불거진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에서 이 문제가 강하게 부각되니 이번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자살로 야기된

일련의 사건에서 그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윤미향 의원은 보도된 바에 의하면 일제시대에 정신대/위안부로 끌려간 우리들의 할머니의 인권회복과 그들의 복지를 위해 자신의 일생을 바쳤다고 했지만, 그가 국회의원에 당선되면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그들을 팔아먹은 대표적인 인물의 표상이었다. 이제 그 사실 여부는 수사를 통해 그 진위가 밝혀지겠지만 이러한 문제가 한국사회의 중심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한국의 미래를 매우 어렵게 하는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핵심은 이들의 삶에는 인간이 추구해야 할 숭고한 가치를 구현하는 희생정신의 일관성 및 성실성, 그 열정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희생하는 극단적인 자기중심의 이익만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이러한 지칭은 비단 이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들, 심지어 우리 성도들(목회자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도 적용되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을 가르치실 때 분명히 우리 인간들은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을까를 걱정하지 말고,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정체성과 우리가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 혹은 지고의 선 (summum bonum)이 무엇임을 분명하게 해주신 것이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지속적으로 우리들의 삶속에서 구현하여 창조주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의 마음을 표출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존재의 이유이자 삶의 방향임을 밝혀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특히 성도인 우리들을 그의 아들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로 구원하신 후 이러한 우리들의 사명을 제대로 성취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들이 필요로 하는 영적 물질 자원을 지속적으로 보충해 주시고, 이를 보충하기 위해 성령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들은 모두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읽고 교회에 출석하고 봉사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면서 예배와 교육과 전도와 선교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인다. 외견상 이러한 신앙생활을 매우 훌륭하다.

과연 우리들의 이러한 외견상의 훌륭한 신앙생활의 동기가 무엇일지를 곰곰이 성찰해봐야 한다. 만약 그 동기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것이 본질이라면,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현실적인 삶의 풍요와 부귀영화라면, 우리들의 성도로서의 모든 생활은 역시 하나님을 팔아먹고 신앙을 팔아먹고 교인과 성도들을 팔아먹고 사는 인간 군상들에 불과할 뿐이다. 성도의 진정한 삶,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이란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얻어질 소위 축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어떠한 희생과 고난이 다가오더라도 이에 전혀 개의치 않으며, 오로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이 땅에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영광스럽게 하며, 하나님의 의를 항상 추구하는 삶에 몰두하는 삶이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신다. 성도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서 일반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의 동기와 그에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할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외견상으로부터 훌륭한 신앙생활 하는 자들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영광스럽게 하며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외면과 내면이 모두 일치하는 올바른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과 신앙을 팔아먹고 사는 자기중심의 이기적인 성도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께 구속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때 교회도, 우리 가정도, 나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진정한 삶의 행복과 영광을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이다.

"삶과 개혁주의 신학 조화시켰다"

(2면에서 계속)

1999년부터 위원장으로 참가한 영어표준역(ESV) 번역감독위원회 활동도 그 중 하나였다. 그가 성공회 경생을 위한 노력 및 '복음주의자와 가톨릭 신자 연합'에 참여한 이유도 그

때문이었다. 패커는 그런 사업들을 이끄는 원동력이 종말론적 소망,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교회의 하나됨을 보다 온전히 실현시키기 원하는 마음이라고 봤다.

패커는 요한복음 17장 20-23

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를 묵상하고 이렇게 적었다. “이 기도문을 읽으면 분명하게 이런 생각이 든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하나님의 하나뿐인 가족이 한 가족으로 말하고 행동해 그들의 언행이 한 가족다운 것으로 보이고 들리게 해야겠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라면 어디나 함께 해야겠구나.”

패커라면 “천로역정”에 나오는 절망 씨에 대해 그리스도인에게 뭐라고 말할까? 아마도 자신의 경험을 덧붙여가며 성경의 신빙성을 열심히 설명하고, 성경본문은 계시된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 편집국장: 유원정 ■ LA지사장: 이성자

·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 665-0099 (대표) (213) 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Tel: (718) 886-4400 (대표)
Fax: (718) 886-0074 (대표)
E-mail: nyk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except for New Years Day and April 18, July 4, and Nov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Periodical postage is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2020년 가을학기 신,편입생 모집

학점 취득방법 Study Options

1. 미국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F-1 Visa (SEVIS-20)** 또는 **J-1 Visa (DS-2019)**
2. 직장과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든지 **Online** 혹은 집중강의로 학점 취득 가능
3. 영어, 한국어 언어에 구애없이 학점 취득 가능
4. 타 대학에서 받은 학점 최대한 인정하여 편입 가능

▶ **VA-APPROVED** (현역, 퇴역 미국 군인 및 가족 장학혜택)

자세한 사항은 web site 를 방문하거나 이메일 혹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학문의 : 전화 (636)327 - 4645, 이메일 usa@midwest.edu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 (636)327 - 4645 / Fax : (636)327 - 4715
E-mail : usa@midwest.edu

Washington DC: 5103 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Campus Tel : (571)730 - 4750 / Fax : (571)730 - 4751
E-mail : wde@midwest.edu

목·양·칼·럼



한평우 목사
(유럽목회자세미나연구원 원장)

성추행

전도가 유망한 사람이 한 순간에 나락으로 굴러 떨어지는 일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다. 성추행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일은 세상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지만 연루된 자가 누구냐에 따라 뉴스를 탄다. 이상하게도 성에 대한 기사는 사람들의 관음증을 일으킨다. 부도를 맞아 옥중생활을 해야 했던 분의 경험담을 들었다. TV에서 성추행이나 간통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 시청하는 모든 수감자들이 일시에 “저 처 죽일 놈” 하고 함창하듯 외치는 모습을 보고 놀랐다고 한다. 자신도

그런 일로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말이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제일 힘든 사람은 가족이 아닐까 한다. 남편을 바라보며 힘든 세월을 살아왔고 이제 좀 고생한 보람이 있게 되었다고 여기는 순간 가정이 쑥대밭으로 변했으니 말이다. 신문과 방송에서 성추행사건이 도배를 하고 있으니 가족들은 피신할 데도 없다. 다 알려진 상황이니 사람이 두렵게 된다. 성추행의 자녀라는 꼬리표를 달고 평생을 살아가야 한다. 천형처럼 말이다. 대체적으로 성추행은 성공

한 사람들에게 많이 일어난다. 그런 사람이 뉴스를 탈 수 있기 때문이다. 세상에서 성공하길만 하늘의 별 따는 것처럼 힘들고, 몇%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축복이다. 고로 성공한 사람은 나름대로 큰 자부심을 갖고 때로는 과신하게 된다. 나는 능력 있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말이다. 그러니 세상을 가볍게 보려는 인식에 자신도 모르게 오염되기 쉽다. 더 나아가서 같은 직장의 야릇사람을 만만한 대상으로 여기게 된다.

영웅이나 뛰어난 정치가들은 여색을 밝힌다는 전통적 내력도 있다. 성공을 위해 그토록 노력했는데, 막상 정상에서 보니 허무하게 된다. 그 헛헛함을 성으로 채우려는 욕구가 있고 그 일은 실패하고 여긴다. 또한 성공한 사람 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든다. 그러나 지 않아서 그렇지 힘 있는 자들 가운데 이런 일에 무관한 사람은 아주 드물 것이다.

캘리포니아 의대 정성과 교수인 데보라 하이드의 저서, ‘

매독환자’에서는 베토벤, 슈베르트, 슈만, 링컨, 고흐, 니체, 모리슨 등이 매독환자였다고 한다. 심지어 성인 같은 이미지가 있는 인도의 간디도 성에 대해 아주 문란했다고 하니 말이다. 바이든은 20대에 상원의원에 당선되어 지금껏 그 자리를 지키고 있고 차기 강력한 미국의 민주당 대통령 후보라고 한다. 그런 그도 여덟 번이나 성 추행에 연루되었다고 한다.

남자들은 왜 이렇게 성에 대해 절제가 어려운 것일까? 남자는 스위치가 눈에 달려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이성에 반응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번 발동이 걸리면 아내, 자식, 명예, 세상의 온갖 비난,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사람의 부패한 마음속에는 ‘간음’과 ‘음란’이 또아리를 틀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항상 주인을 끌고 갈 기회를 양보하고 있다.

다윗은 그날,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늦잠을 자고 오후에 침상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어슬렁거리며 주변을 바라보다

가 저 아래 집(예루살렘은 가파른 경사를 이룬 곳에 세워진 도시임)에서 요염한 여인이 목욕하는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 그에게는 아름다운 부인들이 이미 여러 명 있었던 데도 불구하고 미지의 여인에 대한 욕심이 불타올랐다. 그래서 신하에게 그 여인을 알아보게 했더니 전쟁터에 나간 우리야의 아내라고 했다.

그러나 욕정은 그여인이 정한 여인이(부정한 여인과는 동침하지 못하도록 율법에 명령)알아보라고 했더니 마침 정한 여인이라고 했다. 사탄은 이처럼 기막히게 타이밍을 맞추도록 역사한다. 그래서 다윗이 그 여인과 동침하고는 그녀가 잉태하자 완전 범죄를 꾸렸다. 즉 남편 우리야를 사지에 몰아넣어 죽게 한 후 밋세바를 천연덕스럽게 아내로 맞아들였다. 완전 범죄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다. 물론 철저히 회개함으로 용서는 받았으나 흠결은 대단했다. 자녀들 간의 성폭행과 살인, 자식의 반란으로 인한 수치와 곤고함, 그리고 후

회로 점철된 생을 보내야 했다.

고로 성공한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 대단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자가 이런 문제로 혼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고로 어떤 자리에 오른 자는 술을 멀리하고, 여비서를 마음이 동하지 않을 분으로 해야 한다. 아니면 남자로 하든지... 환경직 목사님이 남한산성에 계실 때 목사 두 분이 찾아뵙고 질문을 드렸다고 한다. 당시 한 목사님은 80이 넘는 상황이었기에, 목사님은 이제 여자 문제에서는 자유하시겠네요? 말씀드렸더니, 무슨 소리, 그 문제는 죽을 때까지야! 라고 대답하셨다고 한다.

그렇다. 이성문제는 죽는 순간까지 조심해야 한다. 이성 문제로 똑똑한 목회자들이 넘어졌고 뛰어난 미국의 정치가들도 옷을 벗어야 했고 유명 지휘자들도 넘어졌다. 다음은 당신 차례일 수도 있다. 조심하지 않으면...

locielo88@naver.com

푸/른/초/장

이규현 목사

(수영로교회)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달아 내리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때 주님은 본문 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중풍병이 나으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앞서 나병환자는 그냥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중풍병자에게는 병의 언급은 없고 죄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사건으로 거대한 파장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사람 중에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참여한 이들도 있었습니니다. 가만히 있다가 사건이 터지자 시비를 걸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점점 퍼져나가고 영향력이 커지니까 위협을 느낀 부류가 있었습니니다. 소위 그 당시 기독교자들, 종교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이기보다는 흠집을 잡기위해 왔습니니다.

서기관들이 시비를 거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죄사함을 선포한 것으로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들은 누구의 권위로 당신의 죄 사함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까. 죄를 사하는 일이 당시에 누가 행하던 일입니까? 그 일은 제사장들의 영역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죄를 사하려고 하면 집승을 잡아 속죄의 제사를 드렸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말씀하는 것은 당시의 종교체제 자체를 뒤흔드는 일입니다. 신성모독도 모독이지만 그들의 자리, 그 시대의 기독교로써 있던 종교지도자들의 자리를 위협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성전의 제도가 파괴 직전에 놓였습니다. 제사제도는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유효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림자가 아닌 실체이십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왔습니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자 아직 안되어 있

습니니다. 하지만 세례요한은 달랐습니니다. 그는 이미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평탄하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몰려가고 이목이 집중될 때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니다. 그리스도와 자신과의 관계설정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시 제도권에 있던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은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예수를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돌풍을 일으키시자 질투하며 정적으로 보았습니니다.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본 것이 아니라 없어야 할 공공의

적으로 보았습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사탄의 나라가 맞섭니니다. 사탄은 공생애 출발에서부터 예수를 공격합니다. 사탄은 무엇을 싫어합니니까?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을 싫어하고 교회가 왕성히 일어나는 것을 거부합니다. 1세기를 보면 교회가 강력하게 일어났을 때 로마의 황제들이 위협을 느끼고 교회를 핍박합니다. 로마시대의 10대 박해는 유명합니다. 그러나 3세기에 이르러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로마를 국교로 지명하면서 핍박은 사라집니다. 그때부터 기독교를 믿는 사람은 소수가 아닌 다수가 됩니다. 핍박의 시대는 지나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혜를 입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수혜자가 될 때부터 기독교는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요즘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회 나가는 것도 은근히 방해하고 눈치를 준다고 말합니다. 모이는 것들이 어려움을 겪는 시간이 올 줄 몰랐습니니다. 그러나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독교는 어려움이 올수록 신앙이 꽃을 피웁니니다. 좋은 환경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좋지 않은 상황속에서 믿음이 더 순수해지고

정금 같이 빚어지기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핍박과 적대적인 일들은 공모를 통해 일어납니다. 진리를 따라 살아가고 복음이 왕성하게 일어나면 그때부터 반대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박해가 있다는 것은 교회가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역사 앞에 늘 도전을 받아왔습니다. 교회도 그렇지만 개인들의 신앙도 언제나 도전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마귀는 그냥 손수히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대놓고 반대하고 핍박하는 것을 그렇게 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병 자체가 낫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렇지만 병 낫는 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죄 문제는 영원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보시면서 가장 본질적인 것을 다루십니다. 질병으로 고통하는 자들을 보시면서 고통의 진정한 원인은 죄 문제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이 중풍병만 낫게 하시고 죄 사함을 선포하지 않았다면 치유 사역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통해 주님은 인간에게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 알려주셨습니다. 인간이 느끼는 차이와 주님이 느끼시는 필요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병 낫는 것을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진짜 기적은 죄 사함을 받는 일입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가 죄의 문제를 다루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선을 행하고, 고행

리가 땅을 위해서도 돕고 사랑의 박스를 만들어 이웃을 돕습니다. 교회가 많은 일을 하기도 하지만 교회가 해야 할 가장 본질적인 사역은 딱 하나로 압축됩니다. 바로 구원사역입니다. 주님은 오늘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을 선포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치르신 가장 값비싼 대가입니다.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푸는 일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치료제 백신 개발에 여러 나라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에 의하면 백신개발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바이러스가 출현하기 때문입니다. 생태계의 백신 등 다양한 문제 해결을 이야기하지만 쉽게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 역시 인간의 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려져 있으면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지구는 파괴되고 세

단하고 정죄합니다. 갈수록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재앙이 전쟁과 기근, 전염병입니다. 그런데 이 셋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인간의 죄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 하는 코로나 팬데믹도 인류에게 무엇인가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참새기 3장에서 시작된 죄의 역사는 인류를 비참한 상태로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22절에서 ‘되조물이나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그리스도만이 온전한 치유자가 되십니다. 예수 백성이 최상의 해결책입니다.

그리스도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온 것은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결길로 빠지지 말고 죄 문제에 초점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이십니까? 우리는 왜 주님에게로 나오는 것입니까?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다른 것들은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니다. 그러나 죄 문제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주님에게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에게 온전히 받아들여진 존재가 됩니다. 그때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1-12절에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놀랐습니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은 죄사함을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중풍병자를 낫게 하셨습니다.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스도를 만나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드러누워 있던 인생이었다면 이제 자기의 침상을 들고 일어나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마가복음 2장 5-12절

려위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체가 분명하고 분별이 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묘하게 파고 들어 오는 유혹은 무섭습니니다. 마귀가 뱀을 달고 나타나면 싸우기 쉽지만 광명천 사자로 나타나면 어렵습니니다. 적인지 아군인지 정체를 숨기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대가 그렇습니니다. 분별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육체를 입고 오신 그리스도가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음을 강조할 때 인자라는 호칭을 사용하셨습니다. 인자는 결국 십자가와 연결됩니다. 주님은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입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리스도는 단순한 설교자나 치료자가 아닌 구원자이십니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는 선포하심은 무엇을 의미합니니까? 죄사함을 받아야 온전한 치유가 가능합니다. 주님은 병의 치유보다 죄의 용서를 더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실제로 근원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죄와 질병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질병은 아담의 범죄로부터 출발되었습니다. 주님은 중풍병자의 질병만 보신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영혼까지 바라보셨습니다.

을 해도 안됩니다.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기 이전에 끝없는 갈등과 번민 속에 살았습니다. 아무리 수행을 해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갖는 상식적인 관점은 죄를 지으면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무슨 재주로 인간이 스스로 지은 죄의 대가를 치를 수 있겠습니까? 마틴 루터는 해결하기 위해 처절한 시간을 보내지만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는 인간의 편에서 해결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는 마치 빛과 같습니다. 때로는 빛을 감지 못하면 노예로 살아야 합니다. 죄의 끔찍함입니다. 죄는 대가를 지불해야 했고 심판을 불러왔습니다. 하나님은 빛으로 죽어야 할 인간을 대신하여 짐승이 대신 죽게 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제도는 한시적이고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단 한 번에 속죄의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신 것은 이제 새 시대가 왔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가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이든 경제적 문제이든 돕습니다. 아프

상의 오염을 막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항상 부분적이고 지역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애를 씁니다. 중풍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병이 낫는다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암 투병을 하다가 나으는 감격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병이 낫는 일이 눈에 띄는 일이기 때문에 관심이 높습니니다. 죄 사함을 받는 일은 금방 눈에 띄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가볍게 여깁니다. 그러나 새로운 삶은 반드시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몸의 치유와 죄 용서의 문제를 같이 다루십니다. 온전한 치유는 몸의 치유와 영의 치유가 같이 일어나야 합니다. 전인적인 치유가 중요합니다. 죄 문제를 두고는 전인적 치유가 불가능합니다. 죄의 위력이 가공할 만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끊임없이 인간의 삶을 파괴 합니다. 정신적인 것만 아니라 몸과 마음, 관계를 망가뜨리고 깨뜨립니다.

세상을 보면 불법이 난무합니다. 정의가 사라지고 질서가 무너지고 세상 곳곳에 균열이 일어납니다. 어디든 평화가 없는 모습입니다. 수많은 이슈가 등장하고 각자의 기준으로 판

코로나와 종말현상

성경이 말하는 종말의 현상들이 곳곳에 나타나면서 다가올 미래가 아닌 '다가온 미래'시대를 이미 살아가고 있음을 본다. 구약성경에 전염병은 패역한 세대에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들 가운데 한 현상이었다. 신약성경은 기근과 지진 그리고 전염병이 있을 것인데, 이로 인해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진다고 말한다. 특히, 누가복음에는 전염병이 복수형으로 사용되어 이것이 어느 한 곳에 국지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산발적으로 여러 장소에서 일어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음을 볼 때, 오늘날 코로나바이러스가 유행하는 현상들이 많은 부분 이러한 조건에 일치됨을 목도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코로나 전염병이 교회가 드러내는 가장 분명한 종말현상으로서 성도들로 하여금 모이지 못하게 하는 일이다.

코로나바이러스는 목회적으로 특별한 위기감을 느끼게 한다. 무엇이든 성도가 어려움을 만나면 교회를 찾아와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해야 하는데, 이 엄병은 교회로 모이는 자체를 금지하고, 여기에 공권력까지 동원되는 것을 보면 과연 말세지말의 현상임을 직감하게 한다. 성경은 분명히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

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히10:25)고 말한다. 종말의 때에는 사랑도 식어질 것이기에 더욱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여 코이노니아의 풍성함을 드러내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나 세상은 이 말씀의 명령들과 역주행하며, 오히려 목회자와 성도들 가운데에도 스스로 '모이지 말자'라고 강조하며 마치 사회적 의식이 깨어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을 본다. 어느 주지사는 찬송을 부르지 말라고 행정명령을 내린 후에도 고소가 되었고 하고, 한국에서는 교회 안에까지 구정직원이 들어와서 설교자에게 마스크를 쓰도록 강제하며 예배를 감시한다고 한다. 기가 막힐 일이 종말현상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빅 데이터와 이상한 세상 여기에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우는 것이 빅 데이터이다. 유튜브를 시청할 때도, 자동 재생기능에 의해서 내가 가진 기록을 파악한 빅 데이터가 계속 유관된 영상물을 제공해주는 것이다. 최근에 셔츠를 하나 구입했

다가온 미래와 준비

위에 약속한 내용들은 항상 다가올 시대의 이야기 소재였었다. 그런데 금번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변화의 가속도가 붙어서 이미 다가온 미래가 되어버린 것이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준비하는 기업들만 살아남는다고 미래시대를 대비하자는 이야기가 많다. 그렇다. 준비해야 한다. 매장 크기와 숫자만을 자랑하던 월마트처럼 해서는 곤란하다. 아마존의 급성장을 보면서 깨닫는 바가 있어야 하고, 비둘기의 순결함을 뱀의 지혜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꾸준한 질문들 속에서 반드시 질문해야 할 것이 있다. 우리의 신앙과 교회에 대한 것이다. 구체적인 교회공동체는 어떻게 이 급변하는 세상의 변화 속에 제대로 반응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요동치는 세상가운데서 교회는 불변한 진리를 잘 파수하며 나아가야 한다. 진리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함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상황이 복잡해도, 답은 간단 명료하다. 바이블이 뭐라고 하는지 그렇게 하면 된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세상의 삶에 홀로족(族)들이 등장하고, 이것이 익숙해지고 편안하여지고, 편한 것이 좋은 것인 줄 오해가 되어 계속해서 비대면 비접촉

을 때 빗세바를 범하는 사건이 만들어졌다. 가뭄유다가 무리에서 이탈되어 혼자 대제사장을 만나러 다니면서 주님을 십자가에 넘기는 죄를 범했다. 도마가 예수님 부활 후, 제자들과 함께 하지 않았을 때, 보지 않고도 믿는 복된 믿음을 가지도록 책망을 받았다. 예수님이 혼자 계셨을 때, 예수님마저 공격하는 간 큰 사단을 보면서 우리들도 홀로 있는 것을 좋아하는 것만큼 사단이 표적이 될 수 있음을 생각해야 한다.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혼자 있지 않고 만나서 이야기할 사람과 상대가 있어야 한다. 쉽게 뛰어내리거나 자해하지 않을 희망이 있게 된다. 사업도 물어볼 사람이 있는 사람은 망해도 크게 망하지 않음을 본다.

교회의 새로운 부흥

그러므로 인생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목적에 맞게 공동체를 그리워하는 DNA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다. 공동체를 향한 갈증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모양 저 모양 친목 모임으로 시작해서 향우회나 전우회, 학우회 등등의 무리 짓기를 좋아한다. 그런데 이러한 인생의 본질과 전혀 다르게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의 비대면화가 너무 가속화된 지금, 사람들은 어떻게 그 공동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들교회)

다가온 미래와 교회

- 뉴노멀, 언택트, 비대면

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히10:25)고 말한다.

종말의 때에는 사랑도 식어질 것이기에 더욱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여 코이노니아의 풍성함을 드러내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나 세상은 이 말씀의 명령들과 역주행하며, 오히려 목회자와 성도들 가운데에도 스스로 '모이지 말자'라고 강조하며 마치 사회적 의식이 깨어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을 본다. 어느 주지사는 찬송을 부르지 말라고 행정명령을 내린 후에도 고소가 되었고 하고, 한국에서는 교회 안에까지 구정직원이 들어와서 설교자에게 마스크를 쓰도록 강제하며 예배를 감시한다고 한다. 기가 막힐 일이 종말현상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뉴노멀, 언택트, 비대면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시대를 표현하는 용어가 생겼다. 뉴노멀(New-Normal)의 시대라고 한다. 일상의 삶과 반대가 되어 정상적이라고 하기에는 합당치 않아서 새로운 노멀, 뉴노멀시대의 등장을 말한다. 두 번째는 언택트(Un-tact)시대이다. 영여에 없는 단언어시대 contact에 임의 부정어를 붙인 조어이다. 세 번째는 상호 실제 얼굴을 보고 대화할 수 없는 비대면 공동체로의 전환을 말한다. 실제 이와 같은 신조어가 생길만한 상황들이 선명하게 보여진다. 식당은 이제 테이크아

는데 사이즈가 맞지 않아서 교환하러 가게를 방문했다. 영수증이나 기타 정보를 위한 이메일을 남기기 위해서 주었더니, 계속 광고 메시지를 보내온다. 그런데, 이제는 메시지 뿐 아니라 인터넷을 켜면 광고판에 관련광고까지 떠오른다. 엄청난 유혹이다. 결국 넥타이에 유혹이 되어서 선택한 후 바구니에만 넣어두고 다른 일을 하던 중에 또 메시지가 날아왔다. 결제하는 데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 도와주고 싶다는 메시지였다. 대신 돈 대출 것도 아니면서 왜 묻느냐고 한마디 하면서, 동대체 뭔가? 싶은 생각이 든 것이다. 이제는 빅 데이터란 존재가 내 생각과 기호를 읽고 보고 있다는 생각에 섬뜩한 느낌마저 들었다.

이제는 서점에도 갈 필요가 없다. 책을 사지 않고 가정에서 그냥 아이패드를 들고 e-book을 읽거나 대신 읽어주기도 하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차량도 운전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되었다. 기업들도 엄청난 변화를 맞이했다. 기계나 시스템들이 홀로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기술로 발전해서, 예전처럼 회사 취직하면 할아버지가 양복 사주며 축하를 하고, 자신이 다니는 회사의 빌딩크기 자랑삼아 말할 필요가 없는 재택근무, 무출근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그래서 어쩌면 이제는 방 안에서 태어나서, 방 안에서 지내다가, 방 안에서 죽게 되는, 그런 세상을 보게 된 것이다.

사회가 형성되다 할지라도, 교회는 성경이 말하는 그 모습을 지켜야 한다.

기독교영성, 개인주의와 양립불가

세상은 점점 인간이 혼자 있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려 한다. 그러나 교회는 그럴수록 더 모이는 대면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왜 그런가?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혼자 있기에 좋은 존재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혼자 있는 문화는 창조의 원리와 맞지 않다. 아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와를 만들고 가정을 이루게 했다고 성경은 말한다. 즉 함께 있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다.

혼자 있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기독교의 영성은 개인주의와 양립될 수 없다. 생각을 해보라. 말씀이 충만하고 예배에 큰 은혜를 받아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진 사람이 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잠시는 몰라도 참 신앙의 사람은 그렇게 될 수 없다. 성경을 보라. 오순절의 성령의 충만했던 사람들 그들은 함께 교회를 세웠고, 저들은 입을 열어 세상 열방의 영혼들을 향해 복음의 나팔을 불었다.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면 방구석에 가만히 앉아 있지를 못한다. 영혼들을 향해 나아가고, 주와 함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함께 예배하게 된다.

혼자 있던 하와가 사단이 꾀어서 선악과를 먹게 되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마귀가 딱 좋아하는 시간이다. 다행히 홀로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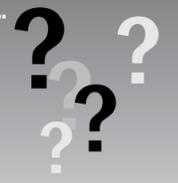
게성을 회복할 수 있을까? 그 대안의 중심에 바로 교회가 있다. 예배가 있다.

혹자는 코로나 이후에 혼자 있는 습관들이 익숙해진 탓에 기독교가 위축될 것이며 교회는 힘들어질 것이라고 전망한다. 일견 이해가 되기는 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본질만 잃어버리지만 않는다면 오히려 코로나 이후에 제2의 예배회복과 새로운 교회의 부흥기가 올 것이라고 여겨진다. 포스트코로나 이후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이 찾는 곳이 교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어놓을 수 있다.

왜 그런가? 코로나가 삶의 지형을 바꾸어 버렸다. 잠시 격리하듯 홀로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본성은 그 체질을 따라 사람이 그림고, 보고 싶고, 만나고 싶어 한다. 실제 외롭다. 그러나 이러한 시절에는 오라는 데가 없다. 학교, 직장, 식당 등 어느 곳이든지 사람이 그리운데 오라는 곳이 없고, 가끔적 오지 않기를 원한다. 함께 밥먹어줄 사람도 잘 없다. 그런데 그런 때에 나를 받쳐주고, 사랑으로 섬겨주고, 함께 찬송하며, 함께 성경공부하고, 힘들면 위로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내가 섬기는 이 로컬처치라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에 합하여 모이기를 힘쓰는 그 교회위에 우리 하나님은 코로나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부흥의 은혜를 허락해주시실 것이다.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교회 / (310)749-0577
Johnjungyunlee@gmail.com

Q: 직장 동료와 동성애와 동성결혼에 대해 토론하면서 성소수자들이 그들이 내게 큰 피해를 안 주는데 굳이 반대할 필요 있느냐고 말했습니다. 저는 해답은 성경에 있다고 봅니다. 성경은 동성애에 대해 무엇이냐고 말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파사디나 Han

A: 좋은 질문입니다. 모든 신앙과 행위의 해답은 인생의 메뉴얼인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종교개혁자들과 개혁신교들이 강조하는 것처럼 "Sola Scriptura(오직 성경으로)"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성경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서라는 데까지 서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주로 5가지로 인해 동성애를 절대 반대합니다. 1)동성애는 창조의 원리에 역행한다. 하나님은 태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둘이 한 몸이 되어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도록 축복하셨습니다(창1:27-28). 그래서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입니다. 동성애를 인정하는 미국교단들은 한 여자와 한 남자와의 결혼을 두 사람 사이의 서약(commitment between two people)으로 바꾸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와 벨리알(사탄)이 어찌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고후6:15)라고 말합니다. 소동사자들이 롯의 집에 온 천사들과 상관(have a sex with them, 동성 성교)하려는 사람들을 비류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비류는 히브리어로 "벨리알의 자손들"이라는 뜻이요 사탄의 자손들"이라는 뜻입니다.

2)동성애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의 말씀에 정면 위배됩니다. 하나님은 천지창조 후에 인간에서 생육하고 번성 하라고 문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창1:28). 그러나 동성애자들은 서로 같은 동성이나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동

동성애는 죄 중에서도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

성이나 동성결혼은 가문의 혈통을 끊게 하는 가문과 사회와 국가의 반역입니다.

3)동성애의 죄는 죄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이 미워하고 혐오스럽게 여기는 죄입니다. 동성애의 죄는 성경적 표현이 "가증하다"(히: 토에바트)는 것으로 구역질나고 가장 혐오스러운 것으로 중요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abomination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 가증하다 라고 표현한 곳은 주로 우상숭배나 동성애의 죄를 말할 때 사용됩니다(신 12:29-31). 우상숭배의 산물인 복술, 요술, 무당, 신접자, 박수, 초혼자 등을 가증한 행위라고 하셨습니다. 동성애 행위는 가증한 일이고 사형을 시켜야 할 죄를 죄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레18:22).

4)동성애는 순리를 역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롬1:26-27). 순리는 영어로 natural relation으로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즉 자연적 관계 곧 남자와 여자의 부부간의 성생활을 말하는 데 역리는 영어로 Unnatural relations로 부도덕한 성관계로 인간이 인간이기를 포기하여 짐승이 되는 인간성 상실의 죄입니다(롬1장). 사실 짐승도 동성애를 하지 않습니다. 5)동성애자들은 천국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며 난잡한 성생활로 결국 천벌을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은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헬, 말라코이-동성애에서 수동적 역할 하는 자)와 탐색하는 자(헬, 아르세노코이타-동성애에서 적극적 역할하는 자)는 하나님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동성애자들은 5년 이상 함께 살지 못한다고 하며 대부분이 난잡한 성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간암, 간염, 직장암 등에 걸려 수명이 25-30년 단축된다고 합니다. 구강 및 항문 성행위로 인해 7가지 비바이러스성 감염과 에이즈에 감염되어 죽게 되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성경과 동성애는 상극입니다.

준비된 교회, 노아의 방주

인생은 편한 것으로만 살수 없는, 삶의 의미를 찾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주의 교회가 주님 앞에 합당하게 준비된 여진다면, 교회는 사막 광야 같은 외로운 인생길에 서 있는 사람들을 초청하여 코이노니아를 회복함으로 반드시 제2의 부흥을 맞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교회는 오고 싶은 곳, 찾고 싶은 곳, 매력적인 곳이 되어야 한다. 한마디로 진리를 제외하고 모든 것을 바꾸는 변화의 과정과 노력만 으면 포스트코로나를 지나면서 결코 기독교와 교회는 쇠퇴하지 않을 것이다.

세상이 모두 흩어져서, 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과 점점 멀어져가고 교회도 쇠하여 문을 닫는다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택한 백성들은 교회 없이 어디에서 자신의 생명을 구원할 노아의 방주를 찾겠는가? 코로나바이러스가 아무리 광범위하여도 코로나염병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와 몸 된 교회를 위해 더욱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면서 더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davidnjeon@yahoo.com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인도네시아의 사파루아(SAPARUA)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으며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국가다. 인종적으로 300개 이상 분류될 수 있는 종족들이 살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 무슬림이다. 동남아에 위치한 인도네시아의 많은 다도해가 오스트리아, 유럽, 그리고 아시아 본토 사이에서 바다의 활로를 이루고 이 섬들은 태평양과 인도양을 연결한다.



11,200명의 사파루아 원주민들이 몰루카스(Moluccas, 혹은 향료의 섬)에 있는 작은 섬에 거주한다. 인도네시아 동부에 위치한 사울라웨시(Sulawesi)와 뉴기니아(New Guinea)와 티모르(Timor) 그리고 필리핀 섬들을 포함한다. 인구는 대개 말라얀(Malayan) 족들이다. 군도의 북쪽은 할마히라(Halmahera, 몰루카스에서 가장 큰 섬), 모로타이(Morotai), 테네이트(Temate), 티도레(Tidore), 마키안(makian), 바칸(Bacan, 또는 바잔(Bajan), 오비(Obi), 그리고 슬라(Sula)

가 있다. 군도의 중부와 남부 섬들은 부루(Buru), 세람(Ceram), 암본(Ambon), 반다(Banda)섬, 카이(Kai), 아루(Aru), 타남바르(Tanimbar), 바바르(Babar), 카살(Kisar) 그리고 위타르(Wetar)가 있다.

삶의 모습

몰루카스 섬 북부의 정향나무와 중부의 육두구(향신료)는 유럽인들이 향료 섬 몰루카스를 익히 알기 오래전에 아시아에서 상거래가 있었다. 1511년에는 이 지역을 통치하는 전쟁으로 많은 인명을 상실했다. 네덜란드의 군대가 승리함으로써 많은 이익을 얻었지만 18세기 말경에 몰루카 향기의 인기가 없어져서 향 거래는 급속히 감소했다. 인도네시아의 문화는 다문화권 이 상호 혼합된 것이다. 인도의 힌두교와 불교가 인도네시아인의 삶

에 깊이 영향을 미치고 건축과 조각에 강한 인상을 남겼다. 인도네시아에 끼친 아랍의 영향력도 13세기 이후 주로 이슬람의 가르침을 통해 도모되었다. 섬 주민들도 13세기 이후 중국인들과 네덜란드인 뿐 아니라 동남아시아와 아시아 다민족들의 문화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인도네시아의 기후는 두 번의 열대성 몬순(Monsoon) 계절이 있다. 하나는 우기(11월-3월)이고 또 하나는 건기(6월-10월). 두 몬순 계절 사이의 날씨는 온후하다. 인도네시아의 비옥한 화산성 토질은 작물이 자라기에 이상적이며 숲은 넓게 번창하고 국토의 2/3을 덮고 있다.

몰루카스섬에서 자진한 흔하다. 섬의 대부분 산악지대다. 특히, 타네이트와 반다와 같은 섬들은 활 화산을 갖고 있다. 그러나 타남바와 아루 섬들은 지대가 낮고 질퍽

한 습지대다. 몰루카의 열대성 기후는 연중 80-150인치의 많은 비를 내리고, 어떤 지역은 이전에 대부분이 숲으로 덮였던 곳이 있지만 항상 비가 와서 평지로 변했고 지금은 경작지가 되었다. 군데군데 대평원들이 있고 해변가는 휴스림으로 가장자리를 두른 늪지대가 보인다.

식량은 사냥과 낚시로 수렵하거나 "싸고"(Sago) 아자나무 같은 전분을 수집해 얻는다. 코코넛은 광범위하게 자라고, 주 수출품은 코프라(Copra) 기름을 내는 마른 코코넛 속, 임업산물, 향료 그리고 야류들이다.

신앙

해변 지역에는 기독교인들과 이슬람교가 주요 신앙이지만 내륙으로 가면 대부분 정령숭배자들이다.

대다수 부족들이 이슬람교이지만 다양한 형태의 신앙을 갖고 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슬람 종교인들을 갖고 있다. 그러나 종교의 자유는 인도네시아 헌법에 보장되었다. 사파루아인들의 66%가 무슬림이며 기독교인은 4% 정도다.

필요로 하는 것들

사파루아인들의 언어로 된 기독교 자료는 아무것도 없다. 그들과 함께하는 선교기관도 현재 없다. 원주민 언어로 된 성경과 예수 영화가 필요하다. 뜨거운 중보기도와 더불어 선교활동으로 현지 성도들을 강하게 붙잡고 이곳 복음의 발길이 미치지 못하는 오지까지 사람들을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무릎은 하나님께만” ...BLM 퍼포먼스 거부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무릎 꿇겠다”며 “흑인의 생명은 소중하다” 퍼포먼스에 반대하며 미국 메이저리그 선수가 화제다. 최근 USA투데이 보도



에 따르면 지난 23일 진행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LA 다저스의 시즌 개막 경기에서 선수들과 매니저, 코치들이 성조기 앞에서 검은 천을 들고 한쪽 무릎을 꿇었다. 이는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흑인의 생명은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 BLM) 운동을 지지하는 퍼포먼스였다. 그러나 그중 단 한 사람만 예외였다. 그 주인공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구원투수인 샘 쿤로드(Sam Coonrod). 그는 이른바 BLM 운동을 지지하는 퍼포먼스가 진행되는 동안 무릎을 꿇지 않은 유일한 인물이었다.

경기가 끝난 후, 쿤로드는 NBC 스포츠 베이 에어리어와의 인터뷰에서 “기독교적 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제외한 그 어떤 것에도 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BLM 운동에 관해 들은 바 몇 가지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쿤로드는 “경기 전 팀원들이나 코치들과 이 문제에 관해 토론할 필요가 없었다. 왜냐하면 오후까지도 무릎을 꿇기로 한 결정을 물렸기 때문”이라고 했다.

가베 카플러(Gabe Kapler) 매니저는 줌(Zoom)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한 가지는 각자가 스스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선수들이 서 있든지, 무릎을 꿇을지, 다른 어떤 행동을 할지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이는 삶의 개인적인 결정이었다”고 전했다.

앞서 ‘WNBA 애틀랜타 드림’ 공동대표이자 상원의원인 켈리 로플러(Kelly Loeffler) 역시 이와 비슷한 발언을 한 바 있다. 그녀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BLM 운동은 막시스트 원리에 기반해 있으며, 가족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흑인 자유 운동을 이끄는 단체인 유명한 프레드릭스 더글라스(Fredricks Douglas) 캘리포니아 대표인 케빈 맥그레이(Kevin McGray)는 BLM에 대해 “나와 가족들도 흑인으로서,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 TOO!) 여기서 ‘도(too)’라는 단어를 주목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형제·자매로서, 피부색으로 대화를 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고귀한 성품과 각각 뛰어난 아름다운 고유의 인격체로 대화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美 사법부에 기소된 중국인들, 가정교회 목사...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연구하는 기업을 해킹하려다 기소된 2명의 중국인들이 과거 가정교회 목회자의 개인 이메일을 해킹해 공산당에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국제기독교연대(International Christian Concern, ICC)가 최근 보도했다.



지난 21일 미 법무부는 10년이 넘는 대규모 글로벌 해킹 작전에 참여한 중국인 2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주로 첨단기술, 제약,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 등을 해킹 대상으로 삼았으며 미국, 중국, 홍콩 등지에서 활동하는 반체제 인사, 목회자, 인권활동가 등의 개인 데이터를 중국 국가안전부(MSS)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샤오위(34)와 등자즈(31) 등 2명은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첨단 기술업체에서 테라바이트 단위의 데이터를 훔쳤으며, 지금까지 빼돌린 기업 정보의 가치는 수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를 개발하고 있는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12개 넘는 미국 바이오메디컬 연구소 네트워크를 목표로 삼았으며, 백신치료와 테스트 기술 연구로 잘 알려진 생명공학 기업의 네트워크 취약점을 조사하기도 했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이들은 과거 청두의 가정교회 목사의 개인 이메일을 해킹해 관련 정보를 중국 공산당에 전달했고, 이후 이 목사는 곧바로 체포됐다.

케리 쿠파 미 사법부 대변인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정부가 이 가정교회를 폐쇄한 지 일주일 만에 두 사람은 이 중국 목회자의 이메일 계정을 해킹한 후 자료를 수집해 중국 정부에 제출했고, 정부는 이 목회자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또 시안의 한 기독교 목회자와 반체제 인사, 전직 천안문 광장 시위자의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유비쿼터스 보안은 다양한 목적으로 시민들을 추적해왔으며, 특히 가정교회를 급습하고 목회자들을 체포하는 데 이용됐다.

中, 교회 폐쇄하고 사회주의 선전기관 전환

중국 정부가 삼자교회(Three-Self Church)들을 “시진핑 국가 주석의 사회주의 가치를 선전하는 문화센터”로 대거 전환시키고 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최근 보도했다.



중국 내 박해 감시단체인 차이나에이드(China Aid)에 따르면, 최근 장쑤성 푸닝현 양자이섬의 ‘흐르는 시내 교회(Flowing Stream Church)’는 중국 공산당 간부들에 의해 강제 점거를 당해 마을의 문화서비스센터로 전환됐다. 이 교회는 앞서 공산당 중앙위원회 산하 부서에 의해 강제 해산된 적이 있다.

마을 주민의 제보에 따르면, 교회 건물은 현재 시진핑 주석의 강조한 사회주의 핵심 가치를 선전하고 복음이 아닌 ‘긍정의 에너지’를 전파할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차이나에이드는 밝혔다.

인근 지역의 또 다른 교회인 베이저우장교회(Beizhouzhuang Church)도 문화중합단지로 변경됐다. 차이나에이드에 따르면, 이 교회도 지난해 10월 등록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국 정부의 의해 해체됐다.

중국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도 교회에 대한 박해 수위를 계속 높여가고 있다. 당국은 최근에도 빈곤층 기독교인들에게 복지수당을 받으려면 신앙을 버리고 마오쩌둥이나 시진핑 주석 등의 공산당 지도자의 초상화로 바꿀 것을 지시했다. 뿐만 아니라, 당국은 최근 몇 년간 교회에 십자가를 내리고 중국 공산당기를 걸도록 요구했으며, 일부 교회 건물은 정치 활동을 위한 용도로 개조했다는 수많은 보도가 있어왔다.

미국 박해 감시단체인 오픈도어USA는 이러한 활동이 중국 정부가 공산당 외에 모든 종류의 단체들을 폐쇄하기 위한, 보다 큰 박해 전략의 일환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은 오픈도어가 꼽은 ‘기독교인이 되기 가장 어려운 50개국’ 중 23위에 꼽힌다.

美, 中총영사관 접수, 청두 美총영사관도 간판 내리

미국이 ‘스파이 활동 중심지’로 지목하며 폐

쇄를 요구한 휴스턴 주재 중국총영사관이 결국 철수했다. 중국 청두 주재 미국총영사관도 중국 정부로부터 철수 요구를 받고 간판을 내린 뒤 짐을 싸고 있다.



7월 25일 외신들에 따르면 휴스턴 중국총영사관은 미국이 요구한 퇴거 시한에 맞춰 전달 직원들을 철수시키고 영사관을 폐쇄했다. 총영사관에서는 24일 오후 4시쯤 외교 변호관이 달린 차량 2대를 포함해 총 3대의 흰색 차량이 직원들을 태운 채 빠져나왔다. 이후 대부분 마스크를 쓴 미국무부 소속 관리들이 총영사관 건물에 도착해 출입문을 열려 했으나 잠겨 있자 오후 4시40분쯤 뒷문을 강제로 열고 진입했다. 휴스턴 경찰은 퇴거 시한을 앞두고 영사관 주변에 바리케이드를 쳤고, 인근 거리를 폐쇄했다.

미국은 지난 21일 휴스턴 주재 중국총영사관을 ‘스파이 활동과 지식재산권 절도의 중심지’로 지목하고 72시간 이내 폐쇄를 요구했다. 중국 외교부는 미국 측의 영사관 진입에 대해 “휴스턴 주재 총영사관은 외교 영사관사이자 중국의 국가 재산”이라며 “영사관계에 관한 빈 협약과 중·미 영사협약에 따라 미국은 어떤 식이든 휴스턴 총영사관 관사를 침범해서는 안 된다”고 이날 웹사이트를 통해 비판했다.

주미 중국대사관은 “미국 남부 각 주와 중국 사이의 교류, 협력 수위를 고려해 주미 중국대사관이 휴스턴 총영사관의 업무를 잠시 대행한다”며 “우리는 예전과 같이 휴스턴 총영사관 관할 지역의 각계 인사를 위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이 조속히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청두 주재 미국총영사관은 중국의 폐쇄 요구에 따라 27일 오전까지 철수를 완료할 예정이다. 청두 영사관에서는 이날 작업자가 크레인에 올라가 미국 휘장을 제거했고, 이후에는 이삿짐 트럭 3대가 영사관 안에 진입했다. 오전에는 청소부들이 건물 안에서 10여개의 대형 쓰레기 봉지를 나르는 모습이 보였고, 영사관 직원이 개인 물품을 챙겨 나오는 모습도 목격됐다.

미국의 중국 총영사관 폐쇄 요청 이후 중국 외교부는 청두 주재 미국총영사관의 설치·운영 허가를 철회하고 모든 업무와 활동을 중단할 것을 미국대사관에 통보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왕원빈 외교부 대변인은 “청두 주재 미국총영사관 직원들이 신분이 맞지 않은 활동을 하면서 중국 내정에 간섭하고 중국의 안보 이익을 해쳤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코로나 심각한 주는 개학 미뤄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이 심각한 일부 주에서는 가을 학기 개학을 몇 주 연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7월 23일 로이터와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코로나19 TF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힌 뒤 “이러한 주에서는 주지사가 통계에 근거해 개학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 주에 대해서는 “학교 수업 재개를 위해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며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와 급식, 심리 상담 등을 위해 개학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5000만 미국 어린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도록 무한정 막을 수는 없다”면서 “학교를 다시 여는 것은 학부모들이 오히려 복귀해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도록 하는 데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교들은 안전하게 열어야 한다. 그러나 열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한국과 유럽 등의 예를 들며 이미

개학을 했지만 확진자 수가 늘지 않았다며 학교 정상화에 대한 강한 희망을 거듭 피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대만, 그리고 다른 많은 나라뿐 아니라 12곳이 넘는 유럽 국가들은 이미 학교를 다시 열었다. 그리고 확진자수는 늘어나지 않았다”면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고 최상의 의료 관행을 준수하며 상식을 따른다면 같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안전한 개학을 위한 추가 지침을 발표할 것”이라며 “의회에 코로나19 (교육지원금) 대책으로 1050억 달러를 신청했다. 만약 개학을 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을 부모에게 지급해 종교단체의 교육이나 홈스쿨링 등의 대안을 찾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학생들은 성인과 달리 코로나19로 중증 상태로 빠지거나 사망하는 비율이 적다는 점을 들어 가을학기에 전면적인 개학을 촉구해왔다.

이란 정부, 성공회 목사에 징역 2년

이란에서 영국성공회 소속 목사가 ‘시온주의 복음주의 단체의 일원’이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고 24일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영국 런던 소재 이란 인권 감시단체와 기독교인 종교 자유 감시단체인 아티클18에 따르면, 이란계 기독교 개종자인 이스마일 마그레비네자드(Ismaeil Maghrebinejad) 목사는 영국성공회에 소속되어 있다.

마그레비네자드 목사는 올해 초에 선고받은 징역 3건 중 1건인 ‘이슬람교에 대한 신성 모욕 혐의’에 대해 19일 항소심에서 무혐의로 인정됐다. 그러나 이를 전인 22일 추가로 받은 ‘국가내란선동’과 ‘정권 적대단체 소속’ 혐의에 대한 선고는 그대로 유지돼 그가 징역 2년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단체는 언급했다.

아티클18 변호사 만수르 불지(Mansour Borji)는 지난주 성명에서 이란 정부가 영국성공회 목사를 국가에 적대적인 단체 소속으로 고발한 것은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불지는 “(이란) 혁명위원회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종교 활동으로 체포된 기독교인들에게 이런 ‘전반적인 표의표(blanet labeling)’를 부정확하게 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아티클 18이 밝힌 범인 문서에는 ‘복음주의적 시온주의’라는 기독교적 견해를 가진 집단을 적대 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 비영리단체에 따르면, 이란법원이 항소 전보다 가혹한 형을 선고한 이유는, 단지 그가 필리핀 사람들의 책에 나온 성경구절이 위성TV 채널을 통해 자신의 휴대폰에 전송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미국에 거주하는 마그레비네자드 목사의 딸 마하사는 앞서 아티클18과의 인터뷰에서 “아버지는 신앙생활을 하는 기독교인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족들은 아버지가 무죄 판결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고, 아버지가 건강이 나쁜 동생의 유일한 간병인이기에 그의 수감생활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마하사는 “아버지가 정권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며 “도대체 어떤 정책이나 법이 기독교인이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아버지와 같은 사람을 감옥에 가둘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란 당국은 이달 초에만 3개 도시에서 최소 12명의 이란계 기독교인들을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은 이슬람교도가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을 불법으로 간주하여, 특히 개종한 기독교인들은 가정교회를 다니는 이유만으로 체포될 위험에 처해 있다.

이란은 오픈도어USA가 꼽은 기독교 박해국 9위에 해당되며, 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로 미국 정부로부터 ‘특별 감시 대상국’으로 지정되어 있다.

선교 한국 그 역사를 찾아서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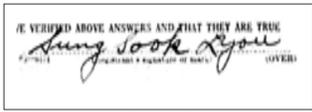


손상웅 목사
(한미교회사연구소 소장)

102. 유성숙(1876-1943)

유성숙(柳聖淑)은 1876년 7월 4일 황해도에서 태어났다. 그가 29세 때인 1905년 2월 25일에 몽골리아 선편으로 하와이 호놀룰루에 도착했다. 그 후 그는 자기의 이름을 Sung Sook Lyou로 적었고, Don Harvey Lyou로도 통했다.

1906년 10월 6일 유성숙이 공립협회 샌프란시스코(상항) 지방회 구제위원으로 피선되었는데, 그달 22일에는 상항 인근 오클랜드초등학교 1반에 입학하였다. 박창선은 그와 함께 1반에 입학했고, 방화중은 같은 학교 6반에 입학했다. 이듬해 1907년 5월에 상항 지방공립협회는 총회장 송석준의 부음을 승하고 회원 방화중과 유성숙을 파송하여 호상토록 했는데 유성숙이 방화중과 함께 본 협회에서 크게 인정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성숙의 날인 (1918년)

리를 옮겼다. 그해 9월에 클레몬트 학생양성소에 그가 5달러를 다시 기부했으니 공부하는 학생을 위하는 마음이 컸음을 알게 된다.

1910년 1월에 유성숙은 오클랜드초등학교 동문인 방화중과 박창선과 함께 유일한 한국어 신문이었던 '신한민보' 가옥설립을 위한 나성대표원으로 활동했으니 신한민보의 귀중함을 짐

지방회 총무였는데 2달 후인 8월에 사임했다.

나성한인장로교회 전도사

하와이에서 1911년 3월에 나성으로 유학은 민찬호 전도사는 나성한인장로교회에 부임하여 복음사역을 이어갔다. 1896년 미국북장리교 의료선교사로 내한했던 해리 C. 셔만 선교사의 부인 프로렌스 셔만이 1904년 3월 미국남장리교회 선교부의 지원을 받아 한인기도처를 설립하면서 본 교회가 조직되었다. 민찬호는 신후우에 이어 두 번째 목회자가 되어 학업과 교회 사역을 병행했다. 그런데 1910년 한일 합방 이후 미국 남장리교회의 친일적인 경향에 흠여지려는 본 교회 교인들이 민찬호의 노력으로 1912년 9월 LA 한인장로교회에 병합하면서 본 장로교회 목회자가 되었다. 당시 본 장로교회 교역자였던 방화중 전도사가 부친 방기창 목사의 서거 소식에 1912년 2월에 내한했기 때문에 본 장로교회 교역자가 공석이었고, 미국북장로교회와 미국남장리교회 간의 예방협정에 따라 LA지역은 미국북장로교 선교 지역이었기 때문에 교단 간 명분이 성립되었다. 민찬호는 가주에 있던 동양인을 목적인 미국북장로교 내지 선교사 라크린 선교사의 지도아래 LA뿐만 아니라 LA 인근에 흠여진 한인기도처

서에 따르면 교인은 총 54명이었고, 새교우는 18명이었고, 유아세례자는 2명이었으며, 학습교인은 15명이었다. 주일예배에 참석한 평균인원은 26명 이었고, 주일학교에 참석한 평균인원은 10명이었다. 이해에 대학생이 4명,



1913년 나성한인장로교회 교인명부

오른쪽 제일 위에 유성숙 (Seung S. Lyou)이 있다. 그의 옆에 방화중이 있고, 방화중 아래에 민찬호가 있다.

고등학생이 6명, 초등학생이 9명, 아 학생이 5명 있었다. 1년간 헌금총액은 801달러9센트였고, 지출에 있어 한국 내지선교비로 191달러77센트, 중가주 다뉴바한인장로교회 보조비로 35달러를 사용하였으니 비록 당회가 없는 기도처에 불과하였지만 선교하는 교회였다. 그해 11월 18일 현재 회계연도 잔금이 113달러26센트였으니 흑자 재정이었던점도 눈에 띈다.

외에도 월로즈에 베통사를 한 사람으로는 김충림이 1,000에이커를, 임준기와 마춘봉이 2,200에이커를, 강대근이 250에이커를, 이재성이 280에이커를 각각 경작했고, 이외에도 치포, 콜루사, 맥스웰, 텔리벤 등에서 여러 한인이 경작했다. 그러나 그해 크게 모두 실패를 하였는데, 그도 실패하여 이듬해인 1921년에 디뉴바로 돌아왔다. 그해 1월에 그는 국민회 디뉴바 지방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1923년 10월에 유성숙은 다시 나성으로 이주했다. 1925년 12월에는 그가 포도를 취급하는 상업을 종사했다. 1928년 4월에 나성에 거주하던 이 인이 자살하였을 때 김찬일과 김배혁 등 두 명이 자기 사업상 시간이 없어도 불구하고 장비를 수봉하는 일과 기타 모든 범절에 많은 수고를 하여 죽은 자의 장례식을 유감없이 치렀는데, 유성숙은 1달러를 장례비로 기부하였다. 그해 8월에 이대위 목사의 장례식에도 그가 기부하였다. 1931년 5월에 그가 나성에 거주하는 150만 명에게 채소와 실과를 공급하는 엠퍼리얼 밸리에서 이들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을 하였는데, 이듬해 7월에 그의 트럭에 불이 나서 막대한 손해를 보았다. 1939년 7월에는 그가 그의 주택을 빌려주어 나성지방 삼일국어학교가 하기 국어강습소를 그의 주택에서 개학했다.

방화중이 노환으로 나성카운티 팜 병원에 들어가 오랫동안 치료를 받던 중 1940년 12월 11일에 향년 64세로 소천했다. 이에 유성숙이 장례식을 주창하였다. 황해도 안악에서 태어난 방화중의 가족은 한국에 있었고, 미국에는 그의 여동생 한 명이 있었는데 유성숙이 그의 매부였다.

소천

5피터9인치의 키에 152파운드의 체중이었던 유성숙은 1938년 12월 6일에 미국시민권을 받았다. 미국시민권을 받은 지 5년이 되던 1943년 2월에 24세였던 그의 처아들 조셉이 122명의 한인 2세의 중군대열에 함께했다. 신한민보는 '청년용사록'를 만들어 종군한 제2세의 방명을 차례로 게재하였고, 재미한족연합위원회는 이 기록에 근거하여 '중군기'를 만들어 국민총회관 벽에 걸고 용사(스타)를 붙여 광영의 숫자를 표시했는데 그의 아들 조셉도 있었다. 그해 12월 23일에 유성숙이 나성에서 타향살이 38년에 향년 67세에 부인 방화중과 배시, 조셉, 매리온, 새라, 조니, 애나, 매리, 조지 등 8명의 자녀를 두고 총종결음으로 이 세상을 떠났다.

damien.sohn@gmail.com

29세에 하와이 도착, 나성에서 방화중 여동생과 결혼

1913년경 나성한인장로교회 전도사로 1년간 사역

나성

유성숙은 1907년 5월 20일, 나성에서 방화중의 여동생 방화중과 결혼했다. 그녀는 1890년 4월 4일에 한국 평양에서 태어났다. 그해 9월에 공립협회 나성지방회 평의원 임준기 대신에 그가 평의원으로 선임되었고, 10월에 방화중, 이순기, 박성운, 조원두, 한기갑의 5명과 함께 나성 한인 유학생 기숙사를 설치하였다. 본국에서 온 한인 자비학생들의 공부를 숙성하고 학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본 지방에 학생기숙사를 설립하고 학생숙비 1년(9달)에 72달러인데 6달 반의 36달러만 가지고 와도 기숙을 허락했고, 학생비는 선급하되 만일 학생이 연고 없이 방학 전에 퇴학하고 기숙사에서 나가 고자 하면 그 기부금을 환불하지 않았고, 학생들의 영어를 연습하기 위하여 매 주일 한 번 본 기숙사에서 영어연설회를 가졌다.

그가 나성 지방회 사법원으로 선임된 이듬해인 1909년 3월에 그는 클레몬트 학생양성소의 학생들을 위하여 5달러를 기부했고, 이듬해 클레몬트로 유학차 떠나는 강영대에 이어 그가 신한민보 지사원이 되었다. 그해 4월에는 나성지방회 법무원에서 회계로 자

소 실천했다 하겠다. 그해 10월에는 그가 본 지방회 재무 겸 서기가 되었고, 11월에는 한국에 농상업의 큰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전답을 구매하기 위하여 설립한 '권업주식회사' 임시 회계였는데 임시 사장에는 방화중이 있었다.

1911년 7월 유성숙은 윤문숙과 함께 나성지방회 국민 의무금 대리위원으로 선정되어 나라사랑을 모으는 일에 힘썼고, 그해 9월에는 박형모, 염봉근, 이영수와 함께 그가 평의원에 피임됐는데, 그해 11월에 국민 의무금 수납위원직을 사임했다. 그해 12월에 그는 서기가 되더니, 북미지방총회 구제원에 선정되었다.

1906년 이후 유성숙과 함께 했던 방화중이 아버지 방기창의 사망으로 1912년 2월에 한국으로 귀국함으로써 그의 모든 미진사항을 유성숙이 맡았는데 가까운 친구의 우정이라 이런 것이다 싶다. 다음 달인 3월에 그가 평의원을 사면했지만 그달에도 2년이나 된 권업주식회사의 회계직은 유지했다. 그런데 이듬해 6월 유성숙은 나성

를 순회하며 예배를 인도하고 그들을 위로했다. 민찬호는 1919년 가을까지 본 교회를 섬겼다.

그런데 유성숙이 1913년경에 미국 북장로교 가주 한인순회 목사였던 민찬호 목사의 지도하에 전도사로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 유성숙 외에 Dong K. Park, Sung T. Whang, Young H. Kim도 순회전도사 민찬호의 보조자였다. 유성숙이 나성에 거주하였으므로 민찬호가 지방 순회 방문차 본 교회를 비울 때 유성숙이 목회를 담당한 것 같다. 민찬호가 나성한인장로교회를 떠나던 1919년 가을까지 유성숙이 본 교회를 섬겼는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지만 1913년 한 해 동안 유성숙이 나성한인장로교회에서 사역한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유성숙이 전도사로 사역하던 1913년의 나성한인장로교회는 아직 당회가 구성되지 않았으므로 당회장은 백인 A. B. 프리차드 목사였고, 담임목회자는 민찬호 전도사였다. 당시 예배당은 올리브 코트 스트리트 2번지에 있었다. 1913년 11월 19일 작성한 보고



나성한인장로교회(1910년대)

유성숙은 디뉴바로 이주했다. 그가 본 지방회 법무원으로 활동하였을 때인 1920년 5월에 이원석이 자기 모친과 다투었는데 모친이 죽겠다할 때 이원석이 영어로 상관없다 하며 육신을 발하였고,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에게 달려들 때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구타하므로 동포들이 울분하여 저들이 사회의 풍기와 윤리 법강을 몰라본다고 여겼으므로 죄를 징계할 뿐더러 그러한 악습을 없애고자 하여 이에 출성시키기로 가결하였고 그 집은 1년 유예로 선고하였다.

1920년에 유성숙은 북가주 월로즈에서 베통사를 하였다. 그는 장기신과 함께 160에이커 베통사를 하였다. 그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Tel: (702)579-7576, Fax: (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26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610)222-0691, 267-471-7777, Fax: (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풍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평 일 예 배: 오전 10: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8:00 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벤델교회 담임목사: 백신중 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찬양):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410)461-1235, www.bethelchurch.org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토요일기도회: 오전 5:30 금요일찬양회: 오후 8:00 목회, 유년,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금) 오후 8:00 Tel: (508)435-4579, www.bostonkorea.org 2 Main St. Hpkinton, MA 01748	살롱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 아침예배: 오전 10:45 토요일새벽기도: 새벽 6:0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8:00 대안찬양회: 오후 1:00 수 요 예 배: 오후 8:00 영, 위, 유년예배: 오전 10:45 중, 고등부예배: 오전 10:45 Tel: (704)877-6642, (704)529-0900 701 Scalyer Rd., Horsham, NC 28209
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토요일: 오전 6:30 Tel: (206)527-0981, www.kppcseattle.org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안디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702)749-9929, www.omychurch.org 7639 Dean Martin Dr., LV NV 89139	알칸사 제자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 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예배: 오후 4: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501)920-9049, www.jejas.com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앵커리지열린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엘파소열린문교회 담임목사: 장용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어)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저녁예배: 오후 7:30 Tel: 교회(915)755-1490, 사택(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백운영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542-0288, Fax: (215)542-9037 706 Wilmer Rd., Horsham, PA 19044
킬린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현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50 수요일예배: 오후 7:0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찬양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Tel: (254)535-1842(H), (254)501-4933(C) 1000 E. Vete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EM)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 (703)941-4447, www.mpcow.org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주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15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Tel: (804)560-7500, www.jkc.org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영어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후 1시 수 요 예 배: 오후 7시 수요일기도회: 오전 5시 30분 (화-토) Tel: (253)536-6675, www.tacomacr.org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어회중: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927-0630, www.kucc.org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기독교 명저로의 초대(22)



이운석 목사 (NY 부르클린제일교회)

윌리엄 퍼킨스(William Perkins)의 “설교의 기술과 목사의 소명” (6)



로서 애용하지 않고 단지 죄의 징벌에 대해서만 슬퍼한다면, 그는 즉각적인 위로를 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성령께서 효과적으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도록 복음을 설교해야 한다.

4) 이미 겸손해진 자: 여기서 우리는 이미 행한 겸손이 온전하고 건전한 것인지 또는 단지 시작에 불과하거나 피상적인 것인지 조심스럽게 고려해야 한다. 사람들이 너무 빨리 위로받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들에게는 복음과 조화된 율법을 세심하게 설명하여 죄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게 함과 동시에 복음의 위로를 발견하게 하는 것이다.

5) 이미 믿고 있는 자: 이들은 교육하되 칭의와 성화와 견인에 대한 복음을 가르치며, 더 이상 저주아래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적용하여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으로서의 율법을 가르치며, 또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고 거룩한 사람들은 율법의 저주로 위협을 받지 않을지라도 남아 있는 죄를 율법이 반대한다는 것을 여전히 강조해야 한다.

6) 믿음에서 실족한 자: 어떤 이들은 믿음이나 삶의 방식에서 부분적으로 은혜의 상태에서 멀어질 수 있다. 믿음의 실패란 복음의 교리를 아는 지식과 그리

6장 하나님을 말씀을 바르게 분별함(본문에서 교리 분석)

설교준비 두 번째 부분은 '어떻게 성경본문에서 교리를 찾아내는가?' 하는 것이다. 이는 말씀을 율법적으로 가능한 일인데, 퍼킨스는 분해(cutting)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양육될 수 있다고 말한다. 여기서 분해라는 개념은 희생제물의 각을 뜯는 것을 요청받았던 레위인들의 활동에서 나온 비유적인 표현이다. 분해에는 두 요소가 있는데 분석(resolution)과 적용(application)으로 나뉜다. 그가 말하는 분해에는 교리와 적용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다. "분석이란 한 본문을 다양한 교리들로 펼치는 것이다. 교리들은 본문에 명백하게 혹은 암시적으로 드러난다. 암시적인 본문으로부터 교리를 이끌어낼 때,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교리)를 끄집어내어 이것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하고 싶은 메시지를 자기가 읽은 본문에 집어넣거나 아니면 자기가 사용하고 싶은 예화를 이야기하기 위해 성경본문을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것은 설교가 아니다. 설교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을 발견해서 이것을 전달하는 것이다. 퍼킨스는 이 과정을 성경의 교리분석이라는 이름으로 명명한다.

7. 성경의 적용(청중의 상태에 따른 적용)

적용이란 성경에서 적절하게 이끌어낸 교리를 회중이 처한 시

행위를 통해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 율법과 반대되는 죄, 그리고 그 죄로 인해 오는 저주에 대해 가르킨다(갈3:10-11). 또한 기억할 것은 율법에 속한 것으로 보이는 많은 진술이 그리스도에 비추어 율법적이 아니라 복음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똑같은 진술이 모세에게는 그 특징상 율법적이고 바울에게는 그 특징상 복음적이다(롬10:8).

적용의 두 번째 원리는 적용의 대상인 청중들의 집단적 상황을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퍼킨스는 청중의 유형을 일곱 가지로 분류한다.

1) 불신자이며 성경에 무지하고 가르침을 받으려 하지 않는 자: 이들은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의 교리를 받을 준비가 되어야 한다. 불신자들이 가르침을

간과 공간 및 회중 각자에게 맞도록 적절하게 다루는 기술을 말한다. 올바른 분석(resolution)을 통해 도출된 교리들은 청중의 건덕을 위해 그들의 상황에 적절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적용의 첫 번째 근본적인 원리는 본문의 내용이 율법적이냐, 복음적이냐 하는 것이다. 말씀을 설교할 때, 이 두 부분은 서로 다르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율법은 죄의 징벌을 드러내고 부수적인 효과로 마음을 자극하고 각성시키지만 율법은 죄의 징벌을 치료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복음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취한다. 우리가 성령으로 중생할 때 복음을 믿고 복음이 명하는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받는다. 따라서 가르침의 순서로는 율법이 먼저이고 복음이 그 다음이다. 율법의 진술은 온전한 본질적인 의의 필요를 가리키고 율법의

받을 준비가 되어있을 때, 하나님 말씀의 메시지를 주어야 하며,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요지에 집중한 기본적인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2) 가르침을 받으려 하지만 무지한 자: 이런 사람은 교리문답을 가르쳐야 한다. 그것은 이해와 기억을 돕는다. 그 교리문답의 내용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자 그 근본적인 원리의 요약이어야 한다.

3) 성경지식은 있지만 겸손하지 않은 자: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경건한 슬픔이라고 부른 것(고전7:8-10)에서 생기는 회개의 기초를 알 필요가 있다. 경건한 슬픔은 죄 때문에 죄에 대해 단죄 슬퍼하는 것이다. 이런 감정을 위해 그들을 책망할만한 율법의 특정한 말씀이 필요하다. 또한 십자가의 외적인 고난으로 괴로움을 겪는 사람이 육신적인 슬픔만을 느낀다면, 즉 죄를 죄

스도를 이해하는 지식에서의 실패일 수 있다. 지식의 실패는 부차적인 교리에서든 근본적인 교리에서든 잘못 아는 것에서 비롯된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지적하는 구체적인 교리를 상술하고 가르쳐야 한다.

7) 신자와 불신자의 혼합이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전형적인 상태이다. 성경적인 한계와 조건을 준수하는 한, 율법이나 복음의 어느 교리라도 그들에게 상술할 수 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악한 자들에게 심판과 파멸을 선언하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메시아의 구원을 약속하는 설교를 행한 것이다. 그래서 마음이 굳어진 사람에게는 인간의 한계를 제한하는 율법을 듣게 하여 죄를 보게 하고, 가책을 받은 양심에게는 적합한 복음의 소리를 듣게 도와주어야 한다.

younsuklee@hotmail.com

사·모·칼럼



장사라 사모

(텍사스 빛과소금교회)

고난의 터널

은 세상이 다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다. 그런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면 한번쯤은 죽음을 생각하게 된다. 행복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새털처럼 행복했던 많은 순간들이 모여 오늘을 만들었으니 오늘은 아파도 행복하고 죽음조차도 감사히 맞이해야 할 텐데 말이다.

그렇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사람들은 그 고난이 언젠가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용광로가 되어 정금으로 제련되는 기쁨을 맛보게 되지 않을까... 읊이 하나님을 아는데 껍데기만 알았다. 그러나 그 어마어마한 고난의 터널을 지나오면서 읊은 이런 고백을 한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욥42:5). 전에는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알았으나 이제는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았다는 고백이리라.

그렇다. 우리는 편안한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리라. 우리 앞이 안 보이는 고난의 터널 속에 서야 하나님을 찾는다. 진짜 의미 있는 고난은 뭘까! 진짜 고난은 내 환경에 찾아오는 것을 내가 감수하고 맞이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런 고난들은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싸워 물리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주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고난은 내가 스스로 자처하는 고난이 아닐까.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고난이리라. 그래서 어쩌면 편안한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가난한 자들과 함께 가난해지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을 지식이 아닌 체험으로 만나게 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고난을 허락하신다고 했는데 곧 죽을 것처럼 앓던 사람도 '불이야'라는 소리에 벌떡 일어나 뛰쳐나갈 수 있는 것은 '나는 아파' '나는 못해' 하고 주저앉은 그 자리가 사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주님은 '네 침상을 들고 일어나 가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사람들은 대개 어느 순간에 성장하기를 그만 두는 것 같다. 키가 어느 날 크는 것을 멈추듯이... 옛 어른들 말에 아이가 아프고 나면 훌쩍 큰다고 한다. 그 말은 사람은 일생동안 커가야 하는데 살면서 만나는 고난을 요리조리 피해만 가는 사람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가슴이 크지 않은 철부지가 된다는 말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 같은 고통 속에서 어떻게든 주님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그 강신한 팔에 안기길 몸부림쳐 본다. 그렇게 자라고 자라서 주님과 맞부딪치면 그 주님 안에 있는 고요한 기쁨과 참된 용기와 깊은 지혜가 그득한 그런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게 되리라.

그렇다. 우리가 인생을 잘 살다는 것은 끊임없이 가파르고 힘든 고갯길을 살아내는 일이다. 어떤 결핵식에서는 결핵여부와 상복을 겸하여 입었다는데... 결핵생활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라 상복을 겸하여 입었다고... 어차피 나의 남은 생애도 한번 뿐이요, 우리의 목회도 한번 뿐인데 피할 수 없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야 한다며 당당히 맞서서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진짜 팔복의 사람이 되는 진통을 감수하리라.

changsam01020@gmail.com

교리분석: 설교준비 중 성경본문에서 교리를 찾아내는 과정 적용의 근본적 원리: ①본문내용이 율법적이냐 복음적이냐 ②청중의(유형) 집단적 상황 고려

라무스의 아홉 가지 논증을 도움으로 삼는다."

교리를 찾아낼 때에는 일반적인 원칙(논리학)을 따라야 한다. 또한 본문에서 마구잡이식으로 교리를 도출해서는 안 된다. 적절하고 타당할 때에만 교리를 도출할 수 있다. 그리고 유추나 알레고리에서 교리를 찾아낼 때에는 조심할 것을 제시한다. 퍼킨스는 적절한 해석을 통해 본문에서 도출된 교리는 그 자체로 권위를 갖는다고 말한다. 우리는 적절한 해석을 통해 본문에서 이끌어낸 교리의 요지에 대한 권위를 믿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믿음의 적절한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 주변의 어떤 설교자들이 성경본문을 읽고 난 후 본문과는 전혀 관계없이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설교라는 이름으로 행하는 것을 본

<p>세계로 뻗어가는 교회</p> <h2 style="text-align: center;">동부(NY, NJ)교회</h2>						<p>뉴욕셋새마네교회</p> <p>담임목사: 이지용</p> <p>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2:4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수요 저녁 예배: 오후 8:30 금요 기도회: 오후 8:30 한국학교: 오전 9:30(토)</p> <p>Tel. (516)620-2004, www.nygethsemene.org 2408 5th St., East Meadow, NY 11554</p>
<p>뉴욕몽양장로교회</p> <p>담임목사: 허신국</p> <p>주일1부예배: 오전 0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02:00 수요성경공부: 오후 08:00 금요철야: 오후 09:00 새벽기도회: 오전 05:45</p> <p>Tel. (718)361-9199, www.moakyang.org 12-25 Clintonville St., Whitestone NY 11357</p>	<p>뉴욕부르클린제일교회</p> <p>담임목사: 이운석</p> <p>주일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02:00 수요예배: 오후 08:45 금요기도: 오전 08:45 새벽기도: 오전 05:30 성경윤리: 오전 10:00 화, 토</p> <p>Tel. (718)265-2584, www.lkcb.org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p>	<p>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p> <p>담임목사: 김혜천</p> <p>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p> <p>Tel. (516)883-1977, Fax. (516)883-1961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p>	<p>뉴욕새별장로교회</p> <p>담임목사: 정기태</p> <p>주일1부예배: 오전 11:00 2부 오전 9:45 3부 오후 12:00 주일저녁예배: 오후 6:00 수요저녁예배: 오후 6:00 새벽예배: 오전 5:45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p> <p>Tel. (917)733-7387, chungkitaeh@yahoo.com 45-16 162 St., #204, Flushing NY 11358</p>	<p>뉴욕새생명장로교회</p> <p>담임목사: 허순준</p> <p>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30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p> <p>Tel. (718)637-1470 45-50 162 St., #2FI, Flushing, NY 11358</p>	<p>뉴욕새사람교회</p> <p>담임목사: 이종원</p> <p>주일1부예배: 오전 10:30 영어예배: 오전 10:45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p> <p>Tel. (718)861-2810(Fax: 경음), (917)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p>	
<p>뉴욕센트럴교회</p> <p>담임목사: 김재열</p> <p>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p> <p>www.pcpcny.org, Tel. (516)387-9940, 9942(EM) 154 Old Westbury Road Old Westbury, NY 11568</p>	<p>뉴저지성도교회</p> <p>담임목사: 허상희</p> <p>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기도회: 오후 8:30 (매주1주, 3주)</p> <p>Tel. (201)342-9194, sungdochurch.org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p>	<p>리빙스톤교회</p> <p>담임목사: 유상열</p> <p>주일예배: 오전 10:50 주일학교: 오전 10:50 청년성경공부: 오후 1:30 주일학교찬양공부: 오후 12:30 주일학교성경공부: 오후 1:30 수요 찬양모임: 오후 8:30</p> <p>Tel. (718)961-2171, Fax. (718)961-3631 215-29 42 Ave., Bayside, NY 11361</p>	<p>베이사이드 장로교회</p> <p>담임목사: 이종식</p> <p>경인예배: 1부 오전 8:00 2부 오전 9:45 3부 오후 12:00 주일저녁예배: 오후 6:00 수요저녁예배: 오후 6:00 새벽예배: 오전 5:45 진교인명예사별예배: 매주 토요일 오전 9:30</p> <p>Tel. (718) 229-2858, www.nybaysidechurch.com/V2 45-62 21st St., Bayside, NY 11361</p>	<p>빛과소금교회</p> <p>담임목사: 정순원</p> <p>주일1부 오전 7:30(토) 주일2부 오후 1:45(토) 주일학교 오후 1:45(토) 청년예배 오후 3:12(토) 새벽기도 매일 오전 6시 목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시 30분</p> <p>Tel. (347)513-1351, cheongssoonwon@yahoo.com 45-11 149 St., Flushing, NY 11355</p>	<p>퀸즈장로교회</p> <p>담임목사: 김성국</p> <p>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12:15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p> <p>Tel. (718)886-4040, www.kapccq.org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p>	
<p>세계로 뻗어가는 교회</p> <h2 style="text-align: center;">하와이 및 북미 지역</h2>						
<p>아르헨티나 제일교회</p> <p>담임목사: 최광연</p> <p>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p> <p>Tel. (54)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 FED., B.S., A.S., ARGENTINA</p>	<p>칠레 한인연합교회</p> <p>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기도회: 저녁 9:00 7:14중보기도회: 아침 7:40 유, 초, 중, 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p> <p>Tel & Fax. (562)556-76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p>	<p>토론토 가든교회</p> <p>담임목사: 김성민</p> <p>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수요예배: 오후 7:30</p> <p>Tel. (416)490-9060, 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p>	<p>하와이 행복교회</p> <p>담임목사: 이남수</p> <p>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p> <p>Tel. (808)5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p>	<p>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p> <p>담임목사: 조일규</p> <p>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12:30(영어)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9:00</p> <p>Tel. (808)947-5252, www.hawaiichur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p>	<p>멕시코 현지인 교회</p> <p>선교사: 임한곤 선교사</p> <p>1. 멕시코 반신 신학교 교수 2. 티후아나 신학대학 교수</p> <p>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후 3:00 주일3부예배: 오후 5:00</p> <p>Tel. (52)33-3507-4111, hanimkr@hanmail.net Goya 530 Manuel, Acuna, Guadalajara MEX(멕시코)</p>	

토요칼럼

김한맥 선교사 (문화동원연구소 대표)



삶에서 얻는 교훈

철조망으로 둘러 친 울타리 안에 두 마리의 개가 산다. 그 개 산다. 참 신통치 않은 개들이다. 지인이 준 강아지들이라...

입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은 다 물어다 난장판을 만들어놓기 때문이었다. 제 어머니는 아주 명민했다는데 새끼들은 그렇지도 않은 듯 심심찮은 방법으로 존재감을 드러낸다.

한 배인 암수라는데 수놈이 하도 말쑥을 부려 목줄을 채워 놓았다. 철조망의 여기저기를 뚫어 개구멍을 내고 나와서는

한두 번이 아닌 대여섯 번이 넘으니 미련하다는 말조차도 아까울 정도다. 어찌하나 보려고 하루를 놔둔 적이 있는데

작은 철조망 구멍에 꼭 낀 머리를 제 재주로는 빼내지를 못한다.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다고 혀를 차며 철조망을 자르고 머리를 빼내주다 문득 나의 자화상이 거꾸 대는 수놈의 머리에 겹쳐졌다.

인간의 죄 즉 나의 죄가 그렇다. 아담으로부터 이어온 원죄는 어쩔 수 없다 해도 내가 저질러왔고 어찌하면 앞으로도 반복해서 저지를 자범죄가 작은 철조망 구멍에 머리를 집어넣고는 내 힘으로는 절대 빼내지 못한 채 절절대는 처지가 너무나 닮아 있다.

전 인류는 아닐지라도 사람 중에 혹 몇이거나 아니 단 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죄를 자신이 해결할 수 있다면 성자 하나님께서 몸소 인간의 몸을 지닌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만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어도 되었을 것이다.

이 성경의 증거다. 하나님이 죄악의 도성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길 때 아브라함이 간청했다. 거기서 의인 열 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창18:32 참조) 하나님은 의인 열 명으로 말미암아 그 도성을 멸하시지 않겠다고 대답하셨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의인 한 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냐고 물었어도 하나님은 그러마고 대답하셨을 것이다. 의인 한 명을 찾지 못해 죄악의 도성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단 하나도 예외 없이 죄로 인해(죄의 삯은 사망) 죽어야 하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것이다. 사람이 태어난 이상 그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할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살 자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대다수가 자신의 구원자인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모른다. 이슬람권, 사회주의권, 힌두교권에서 태어나고 자란 대다수는 그네들

의 구원자도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 알지도 듣지도 못해 그 이름을 부르지도 못하고 있다. “누구든지 주(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롬10:13)는 복음의 권리를 빼앗기고도 그조차 알지를 못한다. 전도와 선교는 그래서 필요하다.

죄악의 구멍으로 머리를 들이밀고는 절대 자신의 힘으로는 그 구멍에서 머리를 빼낼 수 없는 사람에게, 사람이 지은 죄를 해결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로 필요하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라는 찬송이 떠오르며 철조망 작은 구멍에 머리가 긴 채 끄덕대는 개를 보며 깨닫는 교훈이 새삼 새롭다. 이 세상이 필요치 않은 것은 없다. 잊지 못하고 사료만 축내는 말쑥꾸러기 개들을 통해서도 이런 생명의 깨달음을 하나님은 준비해 주신다. 쓸데없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가 감사할 뿐이다.

hanmackim@hanmail.net

기고/칼럼

최수남 목사 (LA 다민족선교)



두 사람의 운명

얼마 전 고국에서 멀리 떨어진 남가주(Southern California)에 들린 소식은 모든 한인들의 마음을 놀라게 하였고 특별히 나는 충격적인 그 소식에 소름이 끼칠 지경이었다. 해외에서의 선교활동 후에 한국에 돌아와서 외국인선교를 하는 동안 몇 번의 사건들을 접한 일이 또 다시 내가 아는 사람에 의해 또 무지 예측할 수 없던 장소에서 발생했기 때문이었다. 즉 ‘권력형 성범죄’와 ‘정치인들의 자살로 사건을 마무리 짓는 잘못된 정치행태’인데 한국에서만 유독 이 일어나는 이 두 사건으로 인

해 나는 도무지 마음을 진정할 수가 없었다.

1950년대에 경남 창녕군 장마면 동장리에 두 남자가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들은 같은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들은 같은 마을에서 자라며 국민(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함께 다녔고 그들 중 나이 어린 아이는 열심히 공부한 탓에, 그리고 부모의 뜨거운 학구열 때문인지(?) 서울로 유학을 가서 경고를 졸업하고 서울대를 입학한 모범생이 되었다.

그 시골마을에서 서울의 경기고에 들어가는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심리도 넘는 중학교 통학 길에 그 어린 학생은 늘 영이단아장을 들고 다녔다니 과히 착실한 모범생이었다고 생각된다. 그 후에 인문대학에서 활약하다가 서울시청의 자리에 8년도 넘게 지위를 유지하였음이 당연한 일이라고 나는 생각하였다.

나이가 몇 살 많은 또 다른 남자아이는 그 당시에 별로 공부도 두드러지지 못했고 문제도 많이 일으키는 청소년이었다. 그는 ‘밀양박씨’ 집성촌인 그 마을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친척이 사는 함안군, 칠원읍으로 이사를 했고 그 일이 그의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 두 청소년이 나이가 좀 나서 별로 친하지는 않았어도 한 마을에서 자랐고 초, 중학교를 같은 학교에 다녔기에 충분히 아는 사이였을 것이다. 그래도 썩 친한 편이 아닌 이 두 소년은 함께한 시간이 있었던 단다. 둘 다 불교를 신봉하는 가정에서 자라났고 어느 날,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그 인근마을의 소문난 점쟁이 앞에 간 두

소년을 그 점쟁이가 장래의 복을 빌어주었다고 한다. 그 후에 한 사람은 서울로 유학길에 오른 그 다른 사람은 인근의 다른 군으로 이사를 옮긴 후로 그들이 다시 대면한 일은 없었다고 한다. 단지 마을 어른들에 의해, 그리고 가끔 동창회에서 서로의 소식을 간간히 들은 것 이외에는 서로 잊고 바쁜 삶을 살았으리라.

세월은 흘러서 그들은 각기 가정을 이루고 한 사람은 인권 변호사, 그리고 서울시장이 되었으며 또 다른 사람은 이사 온 후로 공놀이를 하다 다리를 다쳐 몸을 쓸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지만 친지의 전도로 예수를 믿고 건강을 회복하여서 신학교를 졸업하여 목사가 되었고 먼 나라에 선교사로 갔다

그 선교사가 이슬람선교와 다민족선교를 뒤로하고 고향이 가까운 창원 시로 20년 만에 돌아온 이유는 홀로 계시는 어머니를 가까이서 모시려고 귀향하였다는 소문이 친구들에게 들렸다. 그런데 그 때에 이미 한국에는 외국인들이 ‘코

리안 드림’을 꿈꾸며 많이 들어와 있었고 또 다른 선교의 ‘패러다임’을 한국에 펼쳐준 것은 그 선교사도 몰랐고 한국의 교회들도 몰랐다.

자연히 고향친구들과 선, 후배들의 소식도 접하게 되었고 세상출세로써 성공을 가능하는 상황에서 서울시청에 당선된 그 어린 시절의 이웃동생이 크게 성공하였다고 모두 생각하였다. 진정으로 그가 맡은 소임을 잘 감당하여 앞으로 대선의 가도에서도 탄탄대로가 펼쳐질 대부분의 그 고향사람들은 소원하였고 또 그 선교사도 마음으로 바랐을 것이다.

그러나 들려오던 소식은 그 선교사와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에게 많은 실망감을 주었다. 특히 동생에, 귀어축제를 몇 번이나 서울시청 앞 광장에 펼쳤기에 그 선교사는 트위터를 통해 수없이 그 고향동생인 서울시청에게 권면하였다. 그 행사는 예의를 중시하는 우리 한국의 보편적 가치관에서도 바르지 못한 일이며 자리는 청소년들에게 많은 해악을 끼치는 죄라고 알렸건만 아무런 대답도 그로부터 듣지 못했다. 그

선교사는 고향동생을 불쌍히 여기며 자주 기도하곤 했는데 다행히 그의 부인이 기독교인이라는 말을 들어 한편으로는 안심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사건, 권력형 성범죄에 자살로 이어진 이번 사건의 주인공이 그 고향 동생일 줄이야! 수 없는 추측과 그로 인한 분노와 비애가 가족과 그 사건의 피해자, 그리고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다시 절망케 했다. 비가 오던 그 날, 장지에서 울며 외치던 그 마을주민의 “대통령이 되어 돌아올 줄 알았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고 온 동네를 울음바다로 만든 그 통곡이 이역만리, LA에 사는 그 선교사의 귀에도 들려오는 듯해 마음이 괴로웠었다.

주예수가 바꾸는 인생의 순간들을 그 박 시장은 여러 번 접했을 테지만 세상의 출세와 야욕이 그가 진실로 구세주를 영접치 못하게 막았을 것이다. 아무 것도 내세울 것이 없던 그 마을의 형은 온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하려고 오늘날 아내와 함께 기도하며 힘써 수고하고 있다.

deborah0614@hanmail.net

Worldwide Church Introduction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Grid of church listings including: 나성영락교회, 나침반교회, 남가주든든한교회, 남가주사랑의교회, 대흥장로교회, 디아스포라선교회, 머무는교회, 미주양곡교회, 미주평안교회, 빛과 소금의 교회, 복음장로교회, 베델한인교회, 세계소망교회, 열매교회, 엘피스사역원, 은혜한인교회, 주님세운교회, 주님의영광교회, 좋은마을교회, 코너스톤 교회, 토렌스조은교회, 핼(PIM)선교회, 하느님소망교회,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하는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교계 게시판

PGM 2020년 선교사 집중훈련

전문인선교회 PGM(국제대표 호성기 목사)이 2020년 제 5회 선교사 집중훈련을 위해 전문인 선교사를 모집한다. 훈련일정은 △1차 수료대상: 8월 13일(목)-21일(금) 오후 7시-10시(동부시간) △2차 과송대상: 8월 13일(목)-28일(금) 오후 7시-10시(동부시간)이며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훈련 대상은 스포츠, 교육, 의료, 미용, 캠퍼스, 영상, 어린이, VBS, 청소년, 공휴, 건축 사업 등이다. 등록비는 개인 50달러, 부부 80달러이며 마감은 7월말.

▲문의: (610)397-0484 admin@pgmusa.org

담임목사 청빙

아리조나 피닉스 시에 있는 초교과 사랑의공동체교회에 담임목사를 청빙한다. 청빙조건은 정규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목회자(M. Div), 이중언어 구사, 미국체류 합법적 신분, 3년 이상 이민목회 경력(담임 혹은 부목사). 제출서류는 영한 이력서 각 1부, 본인 및 가족소개서(사진포함), 목사안수증명서, 신앙고백서 목회비전서 또는 목회계획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사본, 추천서 2부, 최근 6개월내 설교영상 링크. 홈페이지 www.lccaz.com

▲문의: hyokchun@yahoo.com

청소년 뉴욕할렐루야 대회

뉴욕교회협의회(회장 양민석 목사)가 매년 주최하는 청소년할렐루야대회가 9월 25일(금)과 26일(토) 프라미스교회(담임 허연행 목사) 주차장에서 열린다. 강사는 대니 강 목사. 150명 좌석을 준비하며 등록을 먼저 해야 한다.

▲문의: (718)279-414

씨즌 스마트폰 무료 강좌

씨즌 스마트폰 무료 강좌(93기)가 8월 6일(목) 오후 7시-8시(60분) 유튜브로 실시간 강의된다. 강의 내용은 △스마트폰으로 온라인 예배드리기 △노트북으로 온라인 예배드리기 △Zoom 사용법 안내이며 강사는 문석진 목사(씨즌 대표). 노트북이나 컴퓨터로 유튜브에 '씨즌 온라인 강의'를 검색하면 된다. 수강료는 무료이나 원하면 뉴욕기독교방송을 선교 후원할 수 있다.

▲문의: (718)414-4848

그레이스미션대 LA공개 강의

그레이스미션대학(총장 최규남 박사)에서 2020년 가을학기 LA 확장 강의실(3020 Wilshire Blvd. LA, CA 90010, #175)에서 8월 29일부터 15주간 매주 토요일 오전 9시30분부터 12시까지 Principle of Accounting and Tax(회계와 세무의 원칙)과목이 실시간 온라인과 대면강의(On Campus), 녹화방식으로 PC, 스마트폰, 아이폰 등을 통한 통신(Distance)방식의 3가지 형태인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강의가 진행된다. 강사는 제임스구 교수(GMU 행정처장과 교회행정 및 커뮤니케이션, NPO, 비즈니스선교 담당)이며 강의는 GMU에 재학 중인 Master of Arts in Intercultural Studies(MAICS) 학생들에게는 필수과목이나 학생이 아닌 모든 분들이 강의를 수강할 수 있다.

▲문의: (714)525-0088

모의 유엔(MUN) 온라인프로그램 신입생 선발

한미연합회, 2020년 9월-2021년 5월 매주 2시간30분

한미연합회(KAC, 대표 유니스송)는 2020-2021년도 모의 유엔(MUN) 온라인 프로그램에 참여할 중, 고등학생들을 모집한다(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올해는 COVID-19팬데믹으로 온라인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KAC 모의 유엔 프로그램은 참가 학생들을 미래 한인사회를 이끌어갈 지도자로 육성하며 학생들은 유엔 회원국 대표자 역할로 유엔회의를 재현해 다양한 과거와 현재의 글로벌 이슈들을 논의하게 된다.

올해로 15회를 맞이하는 KAC MUN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연설, 글쓰기, 비판적 분석 및 지도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전 참여했던 KAC MUN 12학년 학생들은 Princeton, Stanford, MIT, Columbia, Amherst, Boston University, Duke, Harvard, UC Berkeley, 및 UCLA에 입학했다. 지난해에 참가했던 학생들은 최우수 컨퍼런스에서 총 25개의 상을 수상했다.

2020-2021 KAC MUN 프로그램 온라인 신청서는 <https://forms.gle/qa5qMF7HxpmH5QCw5>에서 작성하면 된다.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재정 보조를 받을 수 있다. KAC MUN의 온라인 프로그램은 9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온라인 수업으로 매주 2시간 30분씩 진행될 예정이다.

자격 요건은 △8-11학년을 시작하는 중고등학생들 △12학년은 이전에 KAC 모의유엔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학생인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며 프로그램 신청비는 학생/부모 오리엔테이션 때 접수하며 8월 17일 전까지 조기신청 시 135달러(8월 17-31일 150달러).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매달 50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또한 MUN 컨퍼런스 참여할 시 비용이 추가로 부과된다.

인터뷰는 신청서 제출 접수된 순서대로 진행되며 선발자는 9월 11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문의: (213)365-5999, estherj@kacla.org (기사제공: 한미연합회)

한미연합회(KAC, 대표 유니스송)는 2020-2021년도 모의 유엔(MUN) 온라인 프로그램에 참여할 중, 고등학생들을 모집한다(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올해는 COVID-19팬데믹으로 온라인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KAC 모의 유엔 프로그램은 참가 학생들을 미래 한인사회를 이끌어갈 지도자로 육성하며 학생들은 유엔 회원국 대표자 역할로 유엔회의를 재현해 다양한 과거와 현재의 글로벌 이슈들을 논의하게 된다.

올해로 15회를 맞이하는 KAC MUN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연설, 글쓰기, 비판적 분석 및 지도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전 참여했던 KAC MUN 12학년 학생들은 Princeton, Stanford, MIT, Columbia, Amherst, Boston University, Duke, Harvard, UC Berkeley, 및 UCLA에 입학했다. 지난해에 참가했던 학생들은 최우수 컨퍼런스에서 총 25개의 상을 수상했다.

2020-2021 KAC MUN 프로그램 온라인 신청서는 <https://forms.gle/qa5qMF7HxpmH5QCw5>에서 작성하면 된다.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재정 보조를 받을 수 있다. KAC MUN의 온라인 프로그램은 9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온라인 수업으로 매주 2시간 30분씩 진행될 예정이다.

자격 요건은 △8-11학년을 시작하는 중고등학생들 △12학년은 이전에 KAC 모의유엔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학생인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며 프로그램 신청비는 학생/부모 오리엔테이션 때 접수하며 8월 17일 전까지 조기신청 시 135달러(8월 17-31일 150달러).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매달 50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또한 MUN 컨퍼런스 참여할 시 비용이 추가로 부과된다.

인터뷰는 신청서 제출 접수된 순서대로 진행되며 선발자는 9월 11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문의: (213)365-5999, estherj@kacla.org (기사제공: 한미연합회)

소망소사이터티, 한국어교육자료 LINK

UCSF 치매 및 건강 연구사이트에

소망소사이터티(이사장 유분자 장로)의 웹사이트와 유튜브 교육채널이 UCSF의 치매 및 건강 관련 연구 사이트인 "CARE"(Collaborative Approach for Asian American & Pacific Islanders Research and Education) 자료실에 한국어 교육 자료로 링크(<https://careregistry.ucsf.edu/ko>)됐다.

소망소사이터티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치매와 간병뿐만 아니라 코로나 관련 강의, 죽음준비, 사별과 건강한 애도 등 모든 이들이 필요로 하고 알아야 하는 다양한 정보들을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제공하고 있다. CARE 프로젝트의 총연구

책임자인 UCSF의 Van Ta Park 박사는 "CARE는 미국 국립보건원(NIH)에서 지원하는 연구프로젝트로서 아시아계 미국인 및 태평양 섬 원주민 연구 및 교육을 위한 협력방안을 의미한다"며 "현재 아시아계 미국인 및 태평양 섬 원주민의 의학 연구 참여는 매우 제한적이며, 이들의 연구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문화 및 언어적 정보의 부족과 불신 등

(16면으로 계속)

(박준호 기자)

9월 18-20일, 강사 마이클 조 선교사

뉴욕교협, 뉴욕할렐루야대회 일정 발표

뉴욕 할렐루야 대회 강사와 일정이 결정됐다. 뉴욕한인교회협의회(회장 양민석 목사)는



마이클 조 선교사

지난 7월 23일 회관 사무실에서 대회 관계자 모임을 열고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할렐루야대회 강사에 마이클 조 선교사를 초청했다고 밝혔다.

대회는 현장 집회와 온라인 생중계 동시 진행되며 장소는 미정이다.

대회 주제는 "미래를 향해 함께 갑시다(Let's go Together for the future)"로 강사 마이클 조 선교사는 IM선교회 대표로 역대 할렐루야대회 강사 중 최연소인 42세.

IM선교회(International Mission)는 "한국 다음세대 살리기 운동본부"라는 타이틀을 걸고 2010년에 시작된 다음세대와 부모에 포커스를 맞춘 기

관이다. 설립자 마이클 조 선교사는 유명 영역강사였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국제학교 등 차세대 사업을 시작했으며, 적극적인 활동으로 한국교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회장 양민석 목사는 "마이클 조 선교사는 차세대에 희망을 주며, 부모세대와 차세대를 연결하는 메시지를 갖고, 두 세대가 함께 신앙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길을 제시할 적합한 강사"라고 소개했다.

마이클 조 선교사는 이틀만 말씀을 전하고, 하루는 뉴욕 현지 미국교회 목사인 짐 심블라 목사가 설 예정이었으나, 대회 일정이 달라져 참가하지 못하게 됐다. 교협은 여러 강사를 접촉 중이며, 만약 섭외가 힘들면 마이클 조 선교사가 3일간 대회를 인도하게 된다.

팬데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46회기 뉴욕교협은 부활절새벽기도회, 국가기도회, 포스트 팬데믹 포럼 등을 온라인을 중심으로 예정된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

특히 재정적인 면으로 어려움이 많지만 7만여 달러를 모

금해 팬데믹으로 어려운 교회들을 도왔으며 이번 할렐루야대회를 통한 수입은 차세대를 위한 장학금을 위해 사용한다고 밝혔다.

양민석 목사는 "어려운 차세대를 돕는 것이 이번 할렐루야대회 취지와 맞는다. 젊은이들

이 소외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대회 준비위원장 김희복 목사는 "목적만 분명하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많은 차세대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뉴욕교협 제 2차 임실행위원회가 7월 30일(목) 오전 10시 30분 줌으로 열린다. 참석을 원하는 실행위원들은 교협으로 연락해 ID를 받으면 된다.

▲연락처: (718)279-1414, nyckcg@gmail.com



동양선교교회 창립 50주년 기념예배에서 김지훈 담임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소생 여호와께 돌아가자'

동양선교교회 설립 50주년 기념예배

동양선교교회(담임 김지훈 목사) 설립 50주년 기념예배가 '소생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지난 7월 26일 예배시간에 열렸다.

김지훈 목사는 "50년이 되기까지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린다"며 "오랜 시간 한결같은 마음으로 헌신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성도들께 감사한다. 회년이 되면 모든 속박에서 회복된다. 설립 50주년을 맞은 동양선교교회 출발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열방을 향한 선교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의 믿음과 다음세대의 믿음의 회복위해 교육에 힘쓰겠다. 그리고 우리만을 위한 교회가 아닌 지역사회와 함께 울고 웃는 봉사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하길 축원한다"고 말했다.

온라인예배로 열린 설립 50주년 기념예배는 찬양팀의 찬

양인도와 50년을 감사하는 합심기도에 이어 연합찬양대의 찬양, 김지훈 목사가 '처음마음'(눅10:29-36, 계2:1-4)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날 본 교회 정장근 장로, 진유철 목사(나성순복음교회), 노창수 목사(남가주사랑의교회), 오대식 목사(높은뜻 연합선교회), 주승중 목사(주안장로교회), 박성근 목사(남가주 새누리교회), 김신일 목사(유니온교회), 이상훈 목사(미성대 총장), 이상명 목사(미주장신대 총장), 김우준 목사(트랜스조은교회), 윤대혁 목사(사랑의빛선교교회), 이정엽 목사(LA온누리교회), 박은성 목사(나성영락교회), 권혁민 목사(씨드교회)의 축하메시지가 영상으로 소개됐다.

또 본 교회 설립목사인 고 임동선 목사의 메시지와 2대 이병희 목사, 3대 박광철 목사, 4대 강준민 목사, 5대 박형은 목사의 축하메시지가 상영됐다.

(박준호 기자)



APU한인동문회 주최 2차 법과교회 세미나에서 주성철 목사가 강의하고 있다

'문화변화와 교회사역' 강사 주성철 목사

APU 한인동문회, 제2차 법과교회 세미나 열어

아주사피서대학교 한인동문회(회장 송광철 목사)가 주최한 제2차 법과교회 세미나가 7월 20일 오전 10시 '당신의 교회는 안녕하십니까?'란 주제로 온라인 줌미팅으로 진행됐다.

송광철 목사 사회로 열린 세미나는 주성철 목사(태평양법률협회 한인디렉터)가 강사로 나서 '문화변화와 교회사역'이라는 제목으로 강의했다.

주목사는 "미국은 법치국가이며 헌법 위에 권위는 어떤 것도 없다"고 전제하고 "동성애가 미국에 등장한 후 여러 이슈들이 있어왔다. 트랜스젠더의 경우 수술을 통해 성이 바뀌지만 아무리 성전환 수술을 하고 호르몬주사를 맞아도 태어났을 때 갖게 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성의 신체적 골격은 바뀌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주변에 등록된 성범죄자들이 살고 있다. 이들에 대한 범죄예방을 위해서 시나 카운티에 연락하면 성범죄자 명단을 구할 수 있다"고 말하고 "교회에서 성범죄자들의 예배참석을 거부할 수는 없다. 그러나 행사 및 사역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목사는 "교회분쟁으로 인해 예배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안내봉사자들에게 위급한 상황이 발생되면 경찰을 부르도록 교육해야 한다"라며 "공권력에 의해 예배방해자들의 퇴장은 안전하지만 교인들

끼리 신체적 접촉이 발생할 시 법적인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목사는 "교회에서 결혼관 정책을 세우고 교회의 신학적 위치, 목회자 규제, 신장인 규제, 장소에 대한 규제를 요점에 명시해야 한다"라며 "교단이 헌법에 신앙관을 포함시키면 세법법정에서 다루질 수 없게 된다. 가주에서는 정관헌법은 동일시하고 있다. 오직 결혼 안에서만 이뤄지는 성관계 부분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 법은 사명이 있기 전에는 각자주장을 펼 수 있다. 교회법과 모범과 상반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회뿐만 아니라 사업체에서도 규례에 이 부분을 명시해야 한다"고 말하고 "학교 정규수업을 제외하고 어떤 시간에도 기독교 관련 모임과 행위를 금지할 수 없다. 교내 전도활동을 원할 때 학생이 스스로 전도지를 만들어 전할 수 있다. 이는 학생의 언론 자유보장에 의한 것이며 그러나 이미 제작된 전도지는 사용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주목사는 목회자들이 지도교사로 참석하는 교내 모임은 금지돼 있지만 학생주도 바이블스터디 클럽결성은 허용됨으로 교회에서 학생 리더들을 교육하면 학교에서 효과적인 복음전도가 이뤄지게 될 것이라 말했다.

주목사는 "가주 학부모에게는 자녀의 안전과 교육과 배우는 환경에 대한 감독권리가 있다"며 "학교에서 실시하는 성교육이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선정적 내용을 담고 있어 성교 수업거부가 가능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수업불참이 될 수 있으므로 학교 시작전 '내 자녀가 이런 성교육 받지 않게 한다'는 OPTED OUT FORM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박준호 기자)



나바호자치정부에 전달한 30만장의 마스크 박스

나바호 자치정부에 마스크 30만장 전달

남가주사랑의교회, 현지 한인선교사와 연결

남가주사랑의교회(담임 노창수 목사) 국내선교사역원은 지난 7월 21일 COVID-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 원주민 나바호 자치정부에 마스크 30만장을 전달했다.

아리조나, 뉴멕시코, 유타 주 일부에 거주하는 나바호 원주민인디언은 미국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고 가장 넓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부족이다. 나바호 원주민인디언들은 외딴 마을에 사는 전통적인 거주문화로 대부분 상수도시설 없이 살고 있고 빈곤율이 높고 병원시설의 태부족으로 전염병 대처에 매우 취약한 환경에 노출돼 있다. 따라서 미국에서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확진자가 가장 심각하게 늘어나고 있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된 한성도의 후원으로 나바호 자치정부의 법무부와 현지 선교사역을 하는 황성기 선교사와 협력해 FEMA(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웨어하우스(Warehouse)로 전달됐다.

나바호 자치정부의 대통령인 Jonathan Nez 부부와 부통령 Myron Lizer 부부는 "크리스천으로서 복음화율이 저조

한 나바호 원주민들에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들의 노력이 큰 힘이 되리라 기대한다"며 "하루빨리 나바호 각 지역의 Chapter House와 기타 단체를 통해서 마스크가 전달돼 확진자 감소에 큰 기여를 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미국 나바호원주민들은 한국전쟁에도 군인을 파견해 한국을 돕는 등 한국과는 깊은 관계를 갖고 있다. 현재 미국 원주민인디언에 대한 미국인에 의한 선교는 그들의 깊은 반감으로 한계에 부딪혀있지만 많은 한인선교사들이 유년, 청소년, 장년, 노인들을 여러 사역으로 섬기고 있다.

남가주사랑의교회는 지난 15년간 매년 250명의 선교멤버들이 현지 한인선교사들과 원주민 목회자들과 협력해 아리조나 주와 뉴멕시코 주의 여러 지역 나바호 원주민들을 섬기는 선교사역을 해오고 있다.

특히 이번 COVID 19 기간 동안 나바호 원주민 지역을 비롯해 기타 커뮤니티, 병원과 양로병원, 공공기관 등에 약 50만장의 마스크를 나누었다.

(기사제공: 남가주사랑의교회)

2020 미국 청교도 이주 400년 기념 특집

“청교도 신앙 회복 및 부흥(復興)” (12)

Puritan Restoration and Revival

김경일 목사

(남가주 청교도 이주 400주년 기념 책자 저자 / 남가주행복찬교회담임)



3)청교도 신학과 사상은 “오직 은혜”(Sola Gratia: Grace Alone)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엡2:7-8).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救援)을 얻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恩惠)이다. 은혜는 하나님의 자유롭고 무조건적인 호의(好意)이다. 은혜는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 믿음을 가진 죄인들에게 선물로써 자유로이 주어지는 것이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은 이것이 인간적인 선행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를 강하게 내포한다.

하나님의 은혜(Grace of God)만이 구원의 원인(原因)이 된다. 로마 카톨릭교회(Roman Catholic Church)의 구원관은 공로사상에 근거한 행위 구원에 있다. 즉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라 행위에 근거한 것이기에 수많은 성자를 숭배하고, 금식기도와 고행이 수반되었다. 그래서 루터(Martin Luther)가 95개조 반박문을 내놓을 무렵에는 로마 카톨릭교회에서 면죄부(免罪符)를 판매함으로써 지옥 간 영혼일지라도 그 면죄부 때문에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있었다.

루터는 자신의 구원을 고민하면서 “어떻게 중언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겠는가”였다. 성경(특히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하는 구원

론의 재발견은 자신의 의를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의만을 의존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루터는 성경에 근거하여 오직 은혜로 인한 구원을 강조한다.

종교개혁자 칼빈(John Calvin)도 동일하게 오직 은혜로 인한 구원을 강조한다. 그는 그의 “기독교강요” 3권 “그리스도의 은혜 받는 길”, 특히 15, 16장에서 그는 ‘신인협력설(神人協力說, Synergism)과 ‘공로주의(功勞主義)’를 비판한다. 성경은 도처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동력인(動力因)은 하늘 아버지의 자비와 거저주시는 사랑이라고 선언한다. 이와 같이 그는 소명과 증생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통한 선택의 열매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구원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은혜에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한다. 오직 은혜로 구원에 이르

유효적 부르심에 대하여 이렇게 정리하고 있다. “이 유효한 부르심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로만 되어지는 것이며, 결코 사람 안에 있는 어떤 것을 미리 하나님이 보시고서 하는 것이 아니다”(딤후1:9; 딤후3:4,5; 엡2:4,5,8,9; 롬9:11).

칭의(稱義)에 대해서도 “믿음 자체, 믿는 행위, 또는 어떤 다른 복음적인 순종을 그들의

설명하고 있다. 성화(聖化)에서도 내주시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들은 점차 모든 구원하는 은혜 안에서 활기를 되찾아 강건하게 되어(골1:11; 엡3:16-19), 잠든 거룩의 생활을 하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정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청교도들에게서 오직 은혜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진리가 더욱 명확하게 종합적으로 정리되어 나타나고 있다. 구원의 전 과정이 인간의 어떠한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역사에 의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된다는 것이다.

4-1)청교도 신학과 사상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



존 칼빈(John Calvin, 1509. 7.10-1564. 5.27)

‘칭의는 오직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종교 개혁시 신학과 동일 제네바교리문답: 오직 하나님의 영광 위한 신학과 삶이 중심사상

게 됨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한결을 더 나아가서 구원 이후의 삶도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하고 있다. 그는 구원의 전 과정이 오직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짐을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종교개혁자들의 오직 은혜에 대한 사상은 청교도(淸敎徒)들에게도 동일(同)하게 나타나고 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은 오직 은혜에 대한 진리를 총체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먼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의로 돌림으로써가 아니라... 그 믿음은 그를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그들의 칭의는 오직 값없는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롬3:24; 엡1:7)라고 분명히 언급한다.

또한 양자(養子)됨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함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를 위하여 양자됨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허락하신다”(엡1:5; 갈4:4,5)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광”(Soli Deo Gloria: to the Glory of God Alone)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림이 되라 하니”(계5:13) “그러나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전10:31).

종교개혁자들(Protestant Reformers)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 자들이다. 즉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열심을 자기 실존의 제일의 목적으로 삼지 않고, 자신에게만 생각을 한정하는 것은 건강한 신학이 아니다”라고 한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일할 자들을 선택하심으로 시작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기독교 강요에서 기도를 강조하면 서도 기도 시에 중심 생각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이렇게 말한다.

“자기를 생각하거나 신뢰하지 말고 전적으로 겸허한 자세

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만 생각하며, 자기의 욕심이 성취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한다.” 나아가서 이 세상의 모든 권세들 역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완전한 실현을 향하여 나아가야함을 말한다.

칼빈은 루터가 일으킨 종교 개혁(改革)의 불씨를 전 유럽과 전 세계로 퍼뜨린 개혁의 시조(始祖)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칼빈의 개혁운동과 사상의 중심에는 제네바시가 있었고, 그곳에서 그의 개혁적인 교리와 교회정치가 완성되었다 할 수 있다.

제네바교리문답(CATECHISM OF THE CHURCH OF GENEVA) 제 1문을 살펴보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학과 삶이 중심 사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

“1문 인간의 삶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답: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라고 답한다. “2문 무슨 이유에서 당신은 그렇게 말합니까?”라고 질문에 그 답: “하나님은 우리를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시고 세상에 살게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을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칼빈이 제네바 교회에서 자녀들과 새신자의 성경교육을 위해서 사용하던 교리문답서의 내용에서 제일 먼저 다루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었다. 여기서 그의 신학과 사상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음을 분명히 알게 된다. 이러한 종교개혁자들의 신학과 사상은 청교도(淸敎徒)들에게 그대로 전하여져서 더욱 체계화(體系化) 된다.

kimjoyh@hotmail.com

“삶과 개혁주의.. (3면에서 계속)

패커는 설교자의 직무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성경의 어떤 부분을 강해하건 같보리 십자가와

거기서 이뤄진 구속과 뿔뿔이되거나 무관한 것처럼 보이는 일이 없게 하라.” 따라서 그의 여러 책들은 성경을 강조한다.

그 중 대표적인 책인 “성령을 아는 지식” 마지막 장은 성령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다. “회개와 선행, 충성된 순종, 하나님께 바치는 감사의 찬양이 가득한 삶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참된 열매이자 생생한 증거다.”

이제 요약해보자. J. I. 패커는

복음주의의 미래에 어떤 유산을 남겼는가? 그 덕분에 기독교 신학이 송영, 겸손, 관대함, 정직, 인내, 생명력, 연대와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 더 잘 알 수 있게 됐다. 위대한 ‘삶의 신학자’다운 독보

적인 작업이다. 제임스 패커에게 교회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 그는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모든 방법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오”라고 대답했다. 이는 그가 일생을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그리고 지금도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묘비명에 새겨진 한 말이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

Table listing various churches and their pastors, including: 금관교회, 든든한교회, 로마인교회, 새에덴교회, 성문교회, 성실교회, 성일교회, 수정교회, 승도교회, 시온소교회, 신길교회, 신천교회, 신촌교회, 안암제일교회, 양곡교회, 왕성교회, 장위제일교회, 주안교회, 창대교회, 청주주님의교회, 충신교회.

긴장의 끈 조이고...중단된 일부 사역재개

‘교회 방역강화 해제’ 첫 주일 표정

교회 방역강화 조치가 해제된 뒤 첫 주일인 26일, 전국 교회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만전을 기하면서도 중단했던 사역을 조심스럽게 재개하기 시작했다.

코로나19 대응의 모범 사례로 꼽히는 경기도 수원중앙침례교회(고명진 목사)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다. 고명진 목사는 이날 주일예배 설교에서 “모범생이 되는 것보다 어려운 게 모범생 자리를 지키는 것”이라며 성도들에게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교회는 지난달 성도 가족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사실을 비대면 심방으로 파악하고 신속하게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등 N차 감염 확

신을 총력 저지했다. 수원중앙침례교회는 이날도 소모임 중단을 이어갔고 카페와 식당 문도 열지 않았다. 체온 측정기도 새롭게 배치했다. 안면인식 체온 측정기는 3m 거리에서도 최대 20명까지 체온을 잴 수 있다.

성도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조치도 유지했다. 교회 입구 바닥엔 스티커를 붙여 성도 간 1m 거리를 유지하도록 했다. 예배당으로 가는 계단은 오르내리는 사람이 마주치지 않도록 계단 가운데 선을 그어 나눴다.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이영훈 목사)도 높은 수준의 방역 조치를 유지한 채 주일예배를 진행했다. 교회는 이번 주 중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명 이하로 떨어

질 경우 다음 달 2일 성찬식을 진행하기로 했다.

성도들은 이날도 마스크를 쓴 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그재그 모양으로 그려진 안내선을 따라 예배당으로 갔다. 모든 성도는 등락증을 전자 출결 시스템에 찍어야 예배당에 들어갈 수 있다. 100여명의 찬양대원도 기존의 찬양대석과 예배당 2층으로 분산해 앉아 접촉을 최소화했다.

이영훈 목사는 “코로나19가 종식되기 전까지 불편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면서 “이런 때일수록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 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나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자”고 권했다.

경기도 안산 꿈의교회(김학중

목사)는 2주 동안 중단했던 ‘새가족교육’을 재개했다. 이현석 목회행정기획 담당 목사는 “정부의 방역강화 조치 발표 이후 정규예배가 아닌 모든 모임을 취소했다”면서 “24일 조치가 해제되면서 새신자들을 양육하는 새가족교육반부터 다시 문을 열었다”고 말했다.

서울 신촌성결교회(박노훈 목사)도 철저한 방역 속에서 예배당 문을 열었다. 이날 교회는 방역강화 조치 후 중단했던 찬양대의 찬양을 재개했다.

등락 교인은 휴대전화에 저장된 바코드를 찍고 예배당에 들어갔다. 바코드가 없는 교인은 즉석에서 바코드 스티커를 발급받아 휴대전화에 부착했다.

권성우 부목사는 “교회는 올 초부터 철저히 방역을 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교회 방역강화 조치가 해제됐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다”고 밝혔다.

목회데이터연구소 개신교 중고생 설문조사

다음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게 하려면 가정의 역할이 중요하며 다음세대가 감동할 수 있는 역동적 예배가 회복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목회데이터연구소(대표 지용근)는 최근 ‘개신교 중고생들의 교회 생활과 신앙 의식’에 대한 통계를 분석해 주간 리포트 ‘넘버즈’ 55호에 수록했다. 한국교회탐구센터와 실천신대21세기교회연구소가 지난해 말 교회에 출석하는 중고생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신앙생활에 가장 영향을 준 사람’으로 ‘어머니’(32%)를 꼽은 이가 가장 많았다. 목회자

순위	부모 모두 개신교인	부모 모두 비개신교인
1위	어머니 37%	교회 친구·선후배 26%
2위	아버지 23%	교회 목회자 24%
3위	교회 목회자 13%	교회 친구·선후배 22%
4위	교회 친구·선후배 8%	교회 목회자 17%

(자료: 한국교회탐구센터, 실천신대21세기교회연구소)



고 공과 공부 만족도는 48%였다. 학생들은 예배에 만족하는 이유로 ‘예배 분위기가 활기차다’(35%), 불만 이유로는 ‘지루한 설교’(51%)를 가장 많이 꼽

신앙생활에 가장 큰 영향준 사람은? 중·고생 32% “어머니”

(16%)와 아버지(15%)가 뒤를 이었다. 대상자 중 부모 모두 비신자인 경우에는 학교친구·선후배(26%), 교회 목회자(24%), 교회친구·선후배(22%)로 고르게 나왔다. 비신자 가정의 학생은 교회 차원에서 더 적극적인 관심과 신앙적 돌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성인이 된 후 교회 출석 의향에 대해 10명 중 4명은 교회를 이탈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계속 다닐 것 같다’는 62%로 나왔지만, ‘그만 다닐 것 같다’가 16%, ‘잘 모르겠다’가 22%로 나왔다.

학생들에게 ‘노잼’(재미없다는 뜻의 줄임말)으로 여겨지는 중고등부 예배의 전면적 갱신 필요성도 제기됐다. 예배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51%에 그쳤

었다. 지 대표는 “노잼” 예배는 청소년들이 중고등부 예배를 멀리하게 하는 주범이다. 예배는 활기차야 하며 설교는 짧고 임팩트가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목회데이터연구소는 코로나19 이후 다음세대 신앙 교육을 위한 가정의 역할도 강조했다. 지난 4월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가 전국 개신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다음세대 신앙교육 방향에 대해 ‘부모와 자녀 간 신앙적 대화와 친밀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66%였다. 지 대표는 “교회는 부모가 자녀와 신앙적 교류를 잘하도록 지도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이게 교회학교 교육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모임보다 선교’ 로 구조 바뀌야 생존

KWMA 평창포럼 열고 코로나 이후 교회 선교전략 모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기독교계에서 ‘포스트 코로나’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선교사들과 목회자들이 모여 코로나 이후 선교를 전망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는 28일부터 29일까지 강원도 평창 인터컨티넨탈호텔 컨벤션홀에서 ‘평창포럼 2020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교전략(평창포럼)’을 열고 선교 전략을 모색했다.

황성주 KWMA 부이사장은 “이

제 교회는 (성도들이) 얼마나 모이는냐가 아니라 얼마나 파송하느냐의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며 “모든 신자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다. 삶이 예배가 되는 교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창포럼에서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마치 기원전(BC)과 기원후(AD)를 구분할 정도로 완전히 다른 세계가 될 것이라 예상했다. 참가자들은 선교 역사의 주요 시기를 구분하는 ‘해안선선교→내

지(내륙)선교→미전도종족선교→이주민·난민선교’의 다음 단계는 ‘포스트코로나 선교’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조경호 KWMA 대표회장은 “코로나19는 21세기의 와일드카드다. 총체적 변화를 가져오는 중대한 사건”이라며 “코로나19는 지금까지 한국교회의 목사 중심 구조, 건물 위주 모임, 기복 신앙 등을 근본하게 만들었다. 이 광야 같은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 새로운 선교와 교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전생명 FMnC선교회 선교사는 “앞으로 모든 삶은 언택트를 넘어

온라인상에서 대면하는 ‘온택트(On-tact)’가 될 것”이라며 “시간과 장소, 언어와 문화 장벽을 극복하고 더 진실하게 다가갈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은 인터넷 공간에서도 일하신다”며 “인터넷을 통한 중보기도와 복음증거, 양육과 교회 연결은 더 풍성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평창포럼은 100만 자비량 선교사 동원, 디지털 선교 플랫폼, 차세대 및 3040세대 선교 동원, 말씀과 중보기도 운동, 글로벌 선교 네트워크, 선교사 재교육 및 재배치 등 분야를 다뤘다.

“교주 이만희 소송비용 신도들에게 전가”

신천지 12지파 후원금 명목 모금 공시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측이 이만희 교주 등 신천지 지도부에 대한 소송비용을 후원금 명목으로 신도들에게 걷고 있다. 증여세 납부를 회피하고 횡령 혐의를 받지 않도록 편법을 장려하는 꼼수도 포착됐다.

윤재덕 종합문서사무소에 따르면 신천지 측은 21일까지 신도들을 상대로 후원금 명목의 소송비용을 모금했다. 윤 소장은 지난 16일 유튜브 채널 ‘종합문서사무소’를 통해 “최근 신천지 안에서 소송비용을 걷겠다는 12지파의 공지가 있었다”면서 “신천지 지도부가 최근 신도들에게 ‘총회 법무부 후원

안내’란 제목의 글을 띄웠다”고 밝혔다.

해당 글에는 총회의 법무 비용으로 쓸 후원금을 총회 신학부장 T씨 명의 개인계좌로 보내달란 내용이 나온다. 개인 계좌로 받는 이유는 민사소송에 대한 법무 비용은 신천지 총회 재정으로 지출할 수 있어 문제가 없지만, 형사소송에 대한 법무 비용은 총회 재정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민사소송의 대상은 신천지 조직이지만, 형사소송의 대상은 최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신천지 과천총회본부 소속 총무 A씨 등 신천지 측 간부 5명 개

인이다. 신천지 측은 “총회 재정을 형사소송에 사용 시 처벌되는 문제가 있기에 부득이하게 개인 계좌를 통한 후원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 소장은 “개인 소송에 대해 조직의 돈을 쓰면 횡령죄에 해당하기에 개인계좌로 후원받는 것”이라며 “횡령죄를 피하려는 정황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신천지가 후원금 입금에 횡수 제한은 없지만 1회당 49만원 이하로 이체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증여세를 피하려는 편법이라고 주장했다. 증여세율은 50만원 미만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법무사무소 우진의 김해진 변호사는 21일 “횡령죄를 피하려 한 정황만으로는 문제가 없다”면서도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

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소지는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의 금액을 모집하려면 지자체 등에 등록해야 한다. 증여세 회피 부분도 쟁게 보내더라도 동일인에 대한 합산 청구가 원칙인 만큼 총액이 50만원 이상이면 증여세 대상이라고 봤다.

윤 소장은 후원금의 상환선이 명시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으며 소송 필요 경비 이상으로 모일 후원금이 어떤 경로를 거쳐, 누구에게로 들어가는지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소장은 “신도들도 신천지 지도부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지도부에 대한 신도들의 불신이 커져만 가고 있다”고 전했다.

전국 498단체 “차별금지법 입법저지”

기독교·천주교·불교·유림 등 연합체 진평연 창립총회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진평연)이 지난 2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진평연에는 전국유림총연합 대한민국의 자유(헌법 제19조)를 침해할 뿐 아니라 동성애 교육을 옹호하고 혐오적 성교육을 조장해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헌법 제31조 제4항)도 침해한다”면서 “이렇듯 차별금지법은 국민의 자유를 포괄적으로 통제하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진평연은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이 헌법에 정면으로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명재진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차별금지법은 남녀 이외 제3의 성을 인정해 헌법 제36조 제2항의 양성평등에 위배된다”면서 “또한 동성애에 대한 차별표시, 광고행위를 금지해 동성애의 죄성을 밝히고 반대교리를 명확히 하는 종교의 자유(헌법 제20조)를 침해한

다”고 분석했다.

명 교수는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비판을 막아 시민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헌법 제19조)를 침해할 뿐 아니라 동성애 교육을 옹호하고 혐오적 성교육을 조장해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헌법 제31조 제4항)도 침해한다”면서 “이렇듯 차별금지법은 국민의 자유를 포괄적으로 통제하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진평연은 앞으로 차별금지법 제정 저지, 국가인권위원회법 차별금지 사유 중 ‘성적지향’ 삭제,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국내외 대회 개최 등에 주력한다.

“사이비·이단 교주, 활개친 이유 있었네”

현대종교, ‘교주들 7가지 습관’ 카드뉴스 배포

현대종교는 최근 ‘성공하는 교주들의 7가지 습관’을 카드뉴스로 만들어 배포했다. 내용은 타지일 부산장신대 교수가 연구해 온 이단·사이비 교주들의 실상과 허상을 바탕으로 했다. 탁 교수는 이들 교주에게서 다음과 같은 7가지 공통점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먼저 교주들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해 성공한다. 탁 교수는 “한국 이단 교주들은 정구적인 사회교육이나 신학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하지만 나름대로 성경을 바라보는 자신만의 독특한 관점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정통적 성경관이 없음에도 성경에 대한 문자적

집착과 해석을 통해 성경을 제 마음대로 해석해왔다. 탁 교수는 아전인수식 성경 해석이 이기적인 ‘자기 신격화’ 교리로 귀결된다고 했다.

이는 두 번째 특성과 맞닿아 있다. 탁 교수는 “자신을 신격화된 존재라고 믿고 받아들이는 자기 세뇌 과정을 거친 이단 교주들이 주로 성공한다”고 말했다. 한국 이단의 뿌리인 전도관의 박태선, 통일교의 문성명 등이 대표적으로 자신을 ‘메시아’로 신격화했다. 자신이 신이란 자기 확신이 강한 교주만이 신도들을 미혹해 순종이라는 이름으로 통제하고, 헌신이라는 미명으로 착취할 수 있다.

세 번째로는 끊임없이 교리를 수정하며 위기에 대처해 왔기에 성공한다. 교주들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성경의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가감하는 등 수시로 교리를 변경한다. 따른 성경 속 내용은 물론이고 다른 이단 종교의 교리들을 짜집기하는 형태도 보인다.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이만희 교주가 14만 4000명만 구원받았다고 했다가 목표를 달성하자 새로운 교리 변경을 시도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교주들이 자신이 떠났던 다른 교주를 배신하고 그를 넘어섰기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점, 그런 만큼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2인자를 적절히 견제해 왔다는 점도 성공 요인이다. 탁 교수는 통일교 문성명을 실패한 세례요한으로 깎아내리고 스스로 재림주가 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등을 예로 들었다.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교주의 조직 통제력과 영향력이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다 점에서 ‘경제력’도 주요 성공 요인이다. 탁 교수는 “통일교는 각종 사업을 통해 부를 축적했지만, 대부분 이단 조직은 신도들의 헌금과 노동력 착취를 통해 부를 형성해 나간다”면서 “거점 확보도 중요해 성지 개발로 위장한 부동산 확보에도 열을 올린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단 교주들은 속여야만 성공한다. 이는 교주에 속아도 끝까지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며 자신을 부인하는 신도들의 자기합리화 과정으로 이어진다고 탁 교수는 지적했다.

종교인 과세 헌법소원 ‘각하’ 결정

일부 종교인과 일반시민들 ‘특혜논란’ 주장에

헌법재판소가 일부 종교인과 일반시민들이 종교인의 세무조사 예외 등을 규정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각하를 결정했다. 각하란 청구 자체가 부적법해 위한 여부 자체를 판단하지 않는 것이다.

현재는 A씨 등 종교인과 비종교인들이 소득세법 제12조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를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종교 관련 종사자가 받는 학자금, 식사 또는 식사대, 실비 변상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 등은 종교인의 학자금 식대 등을 비교세 대상으로 규정한 법 조항과 세무조사를 종교인 소득에 한해 실시되도록 규정한 것에 대해 각하를 결정했다. 각하란 청구 자체가 부적법해 위한 여부 자체를 판단하지 않는 것이다.

현재는 이들의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 각하를 결정했다. 우선 일반인의 청구에 대해서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현재는 “종교인들에 대한 혜택이 제거되더라도 이것이 일반 국민

인 청구인들의 납세의무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공무원의 질문·조사를 받을 의무의 내용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가 향상될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인들은 심판대상 조항에 관한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종교인의 청구에 대해서는 “소형 종교단체에 소속돼 매년 과세되지 않을 정도의 소득만 받고 있는 경우 해당 조항들의 혜택을 실질적으로 누릴 수 없어 대형종교 단체에 비해 불리할 수 있지만 이는 납세의무자별 소득격차에 비롯된 결과일 뿐 시행령 조항들이 내포하는 차별이 아니다”라며 “종교인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세기총 마스크보내기운동 2차 전달식



세기총 마스크보내기운동 2차 전달식이 7월 23일 세기총 사무실에서 열렸다.

사단법인 세계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세기총, 대표회장 조일래 목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외동포들에게 마스크 10만장 및 손소독제와 방역복 등을 보내기로 결정하고 7월 23일 오전 11시, 세기총 회의실에서 2차 전달식을 가졌다.

사무총장 신희수 목사 사회로 마스크보내기운동본부장 황의춘 목사가 마스크보내기운동의 필요성과 성과에 대해 보고하고, 7만장의 마스크를 대표회장에게

7만장을 선교사 대표로 참석한 안태용 선교사(인도네시아)에게 전달했다.

이번 2차 후원은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 세기총 상임회장), 최순덕 목사(행복샘물교회, 세기총 후원이사), 오용환 교수(세기총 대외협력위원장), 조일래 목사(세기총 대표회장), 황의춘 목사(세기총 5대대표회장), 정서영 목사(세기총 6대대표회장), 고시영 목사(세기총 법인이사장), 심평중 목사(세기총 수석상임회장), 성문교회와 허승주장로 등이 후원했다.

세기총은 지난 7월 3일 1차 3만장의 마스크 전달식을 가진 바 있으며 해외동포들에게 지속적인 마스크보내기운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연락처: 02-2232-6930 (기사제공: 세계한국기독교총연합회)



“우울증과 영적 치유” (2)



이영희 목사

교도소 교목, TPPM대표

제 6장 괴로움을 겪은 성경 속 인물 이야기

1. 엘리야 - 지침과 두려움으로 죽기를 원했음

엘리야의 이야기는 사람이 기도했을 때 하늘로부터 제물을 태우는 불이 내려오고, 가뭄에는 비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대신 인간의 말을 두려워할 때, 걱정과 두려움에 어떻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이다. 엘리야는 너무나 두려워한 나머지 차라리 죽는 게 더 나은 것이라 생각했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용기를 회복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셨으며, 그가 해야 할 일을 하도록

다시 보내셨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삶 가운데 괴로움과 감당하기 힘든 일로 인해 우울증을 겪고 있다 하더라도 소망이 있다는 것을 배

울 수 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감정적, 정신적, 그리고 영적으로 지쳐 있을 때 그를 도울 계획을 세우고 계셨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갈게 하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 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너의 생명을 죽이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물의 힘을 의지하여 사십 주 사십 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초원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와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와께 열심이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엘리야가 듣고 겹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와께 열심이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하나님의 지시에 따랐다. 그는 공포에 열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일에 집중했다. 그는 하나님이 귀에 속삭이시는 음성에 귀 기울인 것이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가 온 길로 돌아가서 새로운 왕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셨다.

엘리야는 주님께 순종했다. 또 하나님은 그에게 그가 하나님을 믿는 유일한 사람이 아니라 칠천 명을 남겨두셨다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가를 지시하시는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마음의 치유를 얻게 된다.

우리는 우리가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을 때라도 혼자서 아픔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힘든 상황을 극복하려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치유함을 받을 수 있다.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을 때라도 혼자서 아픔 알아야 극복하려면 하나님 음성 듣고 순종함으로 치유 받아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와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운데에 칠천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왕상19:18).

엘리야가 엄청난 두려움으로 인해 죽을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돌보시고 주님을 찾도록 지시하셨다. 우리도 이같이 해야 한다. 엘리야는

기도: “주님, 저의 마음을 아시지요. 당신의 선명한 음성을 듣고 제가 사람이나 혹은 힘든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주님과 주님의 계획 안에서 용기를 갖게 해주세요. 아멘.”

yonghui.mcdonald@gmail.com

에스와티니

“날마다 우리 집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도(셀라)(시편 68:19).

아직은 새벽에는 차가운 기운이 남아 있지만 겨울은 머지않아 풀러갈 모양입니다. 이를 전에는 겨울이 끝날 무렵에 있는 강한 바람이 밤새 불었고, 이번 주부터는 사람들이 야산이나 풀들에 불을 놓는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겨울이 풀러감과 함께 이 어려운 코로나 시절이 좀 해결되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3월 초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 16일부터 국가봉쇄령과 각급학교 휴교령, 교회 등 모임금지령, 이동금지령 등이 발동되어 지금까지 석달 넘게 지속되는 가운데 오늘까지 812명의 확진자가 생겼고 11명이 사망하였으며 408명은 완치되었고 나머지는 자가 또는 병원 치료 중이라고 보건부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인구

백만이 조금 넘는 작은 나라를 감안한다면 결코 적은 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정부 주도로 열심히들 수고하고 있으니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문제는 지난주부터 하루에 20명씩 정도의 신환이 발생하고 있어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삼면을 둘러싸고 있는 남아공의 상황이 더 심각한 것인데 하루에 신환이 몇천명씩 생기고 있어 어제까지 13만명 이상의 환자가 생겼고 2456명의 사망자가 생기고 있는 상황이라서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마음이 무거운 것이 사실인데 시편기자의 고백처럼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의 집을 지신다는 말씀, 참으로 죄송하면서도 감사하고 참으로 위로가 되는 말씀이어서 오늘도 능히 견뎌 나가리라 믿습니다.

그동안 수행하였던 한국에서의 전문인초청 진료 및 수술 사역은 지난 2월 팀까지가 마지막이었고, 앞으로 코로나사

태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따라 달랐지만 그리 쉽게 재개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비행편이 열려야 가능한데, 이웃한 남아공의 상황이 적어도 7월-11월 정도 까지 지나봐야 할 것 같다는 현지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으니까요.

이미 석달동안 계속된 봉쇄령과 이동금지령 때문에 대부분의 임시직들과 또는 정규직이라 할지라도 무노동 무임금? 뭐 이런 사유로 일자리를 잃거나 경제적 상황이 힘들어 진 많은 에스와티니 사람들이 어려운 형편들을 돕고자 하는 일들을 준비하는 중에 이곳 한인교회와 기독교대학교 및 여러 한인 선교사님들이 지역교회 목회자들 및 지역 지도자들을 통해서 어려운 가정들에게 약 2-4주치의 식량을 공급하는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그 일에 작은 부분이나마 함께 참여할 수 있어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다. 석 달 보름 남짓한 기간 중에서 41개 이상의 지역교회와 지역사회를 통해서 1200 가정 이상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한 달에 300가정 이상을 돕는 셈인데 참으로 한인교회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의 헌신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당분간 더 계속되어야 할 것인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한국기독교의사회와 아프리카 미래재단을 통하여 많은 분들이 후원해서 이곳 에스와티니에 코로나방역에 도움이 되도록 개인방호복을 보내 주시는 일이 추진되었고 1000명분을 보내주셔서 4주 전에 이곳에 도착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많이 애쓰신 박재형 선교사님이 주축이 되어 이곳 정부관계자(NDMA: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Agency)들에게 전달하였고

의료진들이 잘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 수고하신 고국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과학 설립 문제는 금년 초에 에스와티니 정부에서 예산도 일부 세우고 외부전문가들로 실사를 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에 코로나사태가 생기는 바람에 전부 중지된 상황이어서 적어도 금년 중에 인가받고 개교하려던 계획은 어렵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어려운 경제여건 때문에 망설이던 정부가 이 사태로 경제가 더 어려워져서 얼마나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지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5. 6월에는 12분이 특별후원으로 또는 정기후원으로 새롭게 또는 다시 함께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고맙습니다. 귀한 후원금 잘 사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있기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기에 감사하면서 하루

하루를 보내며 이 코로나 비상시기와 봉쇄령 기간을 잘 지낼 수 있으리라 기대하면서 다음 소식도 기쁘게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제목

- 1. 필요한 장, 단기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기를
- 2. 의대문제에 대한 주님의 섬세한 인도하심을 잘 바라보고 인내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 3. 온 지구촌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특히 아프리카 지역에서 잘 극복될 수 있기를
- 4. 각선교지의 어려운 현지인들의 사정을 선교사님들이 잘 돌볼 수 있기를
- 5. 전문의 초빙 진료 및 수술 사역에 대한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기를

에스와티니에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그러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김선영 드림 sykim@cnu.ac.kr



신로 펴기

필리핀

끝을 알 수 없는 길을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코로나 기간입니다. 바이러스 확산이 좀처럼 수그러들 것 같지 않은 상황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무기력과 고통의 연속적인 삶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낯선 사람을 만나면 우선 경계를 해야 하며, 악수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백신이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언제쯤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갈지 눈에 보이는 것은 없지만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1. 드디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막내아들 준탁이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으로 마닐라에서 유학하고 있을 때 준탁이가 아파서 일주일만 예상하고 마닐라에 갔다가 113일 만에 6월 30일 잠보앙가 도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113일이 거의 격리생활이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잘 돌아왔습니다. 필리핀에서 25년째 살고 있는데 집으로 오는 길이 이번처럼 이렇게 힘든 경우는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주셨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집으

로 잘 돌아왔습니다.

필리핀 안에서 아직까지 집으로 못 돌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일반 서민들은 이유 없이 갑자기 자주 취소되는 항공과 배 운항으로 황당하여 망연자실하는 것을 뉴스로 봅니다. 객지에 나가서 돈은 떨어지고 노숙자처럼 길거리에서 몇 달 동안 돌아갈 집만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어 마음이 아픕니다. 노숙자처럼 비가 내리면 비를 맞아야 하고 주머니에 돈은 없어 자원봉사 음식이 오기 전까진 다른 방법이 마땅하 없었습니다.

항공 티켓을 구입하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이며, 항공 티켓을 구입하였다고 비행기를 바로 탑승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동사무소에 가서 거주 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하고, 병원에 가서 코로나 검사를 받아 이상 없다는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가서 여행 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공항에 가면 다시 병원 증명서와 여행 허가서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병원 증명서와 경찰서 여행 허가서를 준비하는데 4일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에 기도를 합니다. 이번에는 비행기가 꼭 운항할 수 있도록... 공항에 가

서 보딩 수속을 밟을 때 준탁이 병원 증명서에 이상이 있다 하며 여직원이 서류를 가지고 어디론가 가더니 한참 후에 왔는데 기도를 정말 간절하게 하였습니. 준탁이가 못가면 우리 부부도 갈 수 없기에 그렇습니다. 다행히 허락을 해주어 겨우 비행기에 탔습니다. 잠보앙가 공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젠 정말 집으로 가는구나... 잠보앙가 공항에 도착하였을 때 우리 부부와 준탁이는 비행기 앞자리에 앉아 일찍 내렸는데, 공항 입구에서 준탁이 병원 증명서에 이상이 나와 있다 하며 서류를 어디론가 가져가더니 한참 후에 와서 기다리라고 말하여 우리 가족은 공항에서 제일 늦게 까지 남았다가 집으로 간 것이 아니라 격리장소로 일단 옮겨졌습니다.

이상이 있었다면 비행기를 탈 수 없었는데 잠보앙가 도시는 더 강력하게 제재한다며 다시 코로나 검사를 해야 한다고 격리 시설에 들어가서 기다리라고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하루만 있다가 집으로 갈 수 있다고 하더니 그 이후로는 무소식이었고, 격리 시설 장소는 호텔이 아니고 모텔이었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 유

형업계 사업이 안 되다 보니 잠보앙가 시와 모텔업소들이 계약을 하여 격리 장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코로나 검사를 하고 6시간이 지나면 결과가 바로 나와서 집으로 가는데 필리핀은 모든 것이 열약하고 코로나 키트도 부족하고, 의료수준도 약해서 4일을 기다려 코로나 검사를 코로 하였고, 5일을 더 기다려 음성이 나와서 가족 모두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필리핀에서 외국인이 코로나에 확진되어 병원에 입원하면 개인 부담이 되기에 우리 가족 3명 정도만 하여도 한국 돈으로 8천만 원 정도 지출이 되는 여파어마한 금액입니다. 가족 모두 음성이 나와서 정말 다행입니다. 우리 가족이 잠보앙가 도시 격리시설에서 8박9일 머무른 기간 동안 외국인으로 원칙적으로 비용을 지출할 경우 60만원입니다. 60만원이면 저희 학교의 선생 4명 한 호사인데 우리를 도와줘서 현 지인과 동등하게 무료로 숙박 처리와 병원비가 잘 해결되었습니다.

올해는 우기철이 빨리 와서 마닐라에 있을 때 집을 위해

기도를 많이 하였습니다. 우기철 때마다 지붕에 올라가 지붕을 고치는데, 마닐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었습니다. 집에 와서 보니 비가 한 방울도 세지 않아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가족이 마닐라에 있는 동안 큰 태풍 몇 개가 지나가서 집을 위해 기도를 많이 하였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우기 철이라 그런지 담장 옆에 풀들과 담쟁이 넝쿨들이 집 안으로 들어와 여기저기를 휘감고 있었고, 부엌 옆으로 풀밭에서는 2미터 정도 되는 구렁이가 얼른 담을 넘어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도둑과 양이들이 집에 들어왔다 나갔나 하였고, 집 천장에는 쥐들이 빠르게 돌아다니는 소리가 들립니다. 쓰레기봉투를 걸어 두면 밤늦게 이구아나가 와서 비닐을 찢으려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담장 옆의 공터에서는 우기철이 연못이 생겨 밤새도록 두꺼비들이 소리를 내는데 정말 시끄럽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50년 된 나무 집으로 같은 깨끗해보여도 나무 안에 나무 벌레들이 많아 잠잘 때 여기저기에서 나무 갹아먹는 소리가 “사각사각” 들려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동물의 왕국 같습니다. 8박9일은 격리

장소에서 격리하였기에 집에서는 일주일만 격리생활하고,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하여 그동안 밟았던 청소와 서류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2. 현탁이는 한국에서 잘 있습니다.

현탁이는 6월 12일 마닐라에서 한국에 돌아가서 자가 격리를 경기도 파주에서 잘 마쳤고, 군대 가기 전까지 7월 26일까지 그곳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동안 현탁이가 머물 장소를 구하려고 여러모로 알아본던 중에 많이 힘들었는데 어느 권사님이 원통을 제공해주셔서 잘 생활하고 있어 감사합니다.

기도제목

- 1.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필리핀 전체가 혼란스러운데 속히 진정되어 모든 일이 일상적으로 되돌아 갈 수 있도록
- 2. 새희망 학교에서 2020년 새 학기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외진 지역이라 온라인 수업을 못하는데 다른 방법을 잘 마련할 수 있도록)
- 3. 준탁이가 가족과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회복되도록

오정운/공운자 선교사 ohgongtak@hanmal.net

매일가정예배

전화령(캄보디아 선교사)

whiteyou11@yahoo.com

월 늙은 여자에 대한 권면(딤후2:3)찬363장

사도는 계속 “늙은 여자는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여자들이 범하기 쉬운 약점을 인식하고 지적합니다. 첫째, 거룩한 행실을 지키게 해야 합니다. 이는 경건한 삶을 가르칩니다. 말의 절제가 필요한 연령이기 때문에 야고보는 말의 불경건으로 일어나는 치명적 증거를 보임으로 말에 온전한 자 곧, 덕을 세우는 은

혜로운 말을 하라고 가르칩니다. 둘째, 일락을 경계해야 합니다. 술의 종이 됨은 빠지기 쉬운 유혹입니다. 도박이나 일락에 사로잡힘을 경계하기 위해 바른 말씀을 순종하게 해야 합니다. 셋째,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 선이란 성경이고 성경을 적용한 것들을 포함합니다. 경건의 본으로 교회를 견고하게 해야 합니다.

화 젊은 여자에 대한 권면(딤후2:4-5)찬88장

사도는 젊은 여자들에게 무엇을 강조합니까? 첫째, 가정의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집안의 가사를 돌볼 때부터 신중과 순전함이 나타내야 합니다 이것은 착함과 신실한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가정을 견고하게 하고 교회를 견고하게 하는 일입니다. 둘째, 자기 남편에게 복종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사랑과 복종은 언제

나 언약백성의 삶에 필수적이고 서로 의존적이어야 합니다. 사랑을 받아 복종함도 있지만 복종을 통해 사랑을 가져오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세상에서 그 빛을 나타내려는데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이 교회를 세우며 이 악한 세상을 이깁니다. 그 길을 감시다.

수 젊은 남자에 대한 권면(딤후2:6-8)찬470장

젊은 남자에게는 어떤 것으로 가르쳐야합니까? 첫째, 신실함이 기본입니다. 둘째, 선행의 본을 보여 바른 교훈의 능력을 증거 해야 합니다. 바른 교훈인 성경은 언제나 우리를 착하게 합니다. 빛의 열매인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남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가슴에 바른 말인 성경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야 합니다. 성경적 비전으로 총만하여 이 혼란의 시대에 창조적 삶을 살게 해야 합니다. 우리 시대의 혼란을 해결할 길은 바로 성경뿐이기 때문에 성경에 의존된 사색의 청년들이 많이 나와야 합니다. 교회는 이런 젊은이를 많이 길러 내야 합니다.

셋째, 바른 말을 하게 해야 합니다. 꿈이 많은

목 중들에 대한 권면(딤후2:9-10)찬172장

앞서 말한 각 계층의 교회는 사회적 책임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주종관계를 성경적으로 세워나가야 합니다. 중들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첫째, 범사의 순종을 힘써야 합니다. 이것은 모든 일에 순종을 통해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을 배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참된 성실성을 나타내야 합니다. 도둑질이나 부정직은 모두 악한 탐욕에서 나옵니다. 셋째, 그 목적은 하나님 교훈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주인을 잘

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목표이나 그 교훈의 위대한 영광을 앞설 수 없습니다. 참 교훈의 효과와 능력을 나타낸 사회적 변화 곧 진정한 부흥의 역사를 보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말씀의 집이고 하나님나라의 현장을 보여야 합니다. 혼란이 연속되는 긴 어두움의 때에도 그 교훈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음을 순종을 통해 보여야 합니다.

금 온 교회에 주신 권면(딤후1:11-13)찬28장

사도는 각 연령층뿐 아니라 일반 교회가 해야 할 일을 아래와 같이 말합니다. 첫째, 불경건을 이겨야 합니다(11-12). 불신실함과 불의의 이기는 교회가 항상 힘쓸 목표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능력이고 교회의 생명이며 교회의 행복입니다. 이런 경건은 오직 은혜의 구원에서 나오기 때문에 교회는 이 구원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적 긴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소망이 가질 때 현재의 삶에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을 지킬 수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대의 혼란은 이 경건과 소망을 필요로 합니다. 사도 권면을 겸손히 따릅니다.

토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 목회(딤후2:14)찬410장

사도는 교회를 세우는 목적이 무엇임을 보여 줍니까? 첫째, 속박하심을 즐겨야 합니다. 모든 불법에서 구속하신 근거는 그 자신 대속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대속하심이 우리에게 의를 주신 유일한 근거입니다. 이 의를 잘 가르쳐 교회로 구속의 감격이 넘치게 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의 성결을 지켜야 합니다. 세상에서 구분해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주님은 날마다 거룩한 백성으로 나타나기를 원하

십니다. 그러려면 깊은 회개와 믿음으로 그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셋째, 선한 일에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선행보다 차원 높은 영적선행을 힘써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소극적인데서 적극적인 자리까지 나아가는 교회로 이 어그리진 시대를 변화 시킵시다.

코로나와 온라인예배



김향안 목사
(한국교회 정보센터 대표)

-전혀 새로운 예배 환경에서(하)

2020년 부활절

2020년 봄 코로나 19로 거의 모든 교회가 영상예배를 진행하였다. 문제는 사람 간의 전파를 막아야 하므로 부활절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어려움이였다. 어떤 사람들은 연합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 부활절을 연기하지는 주장까지 하였다. 하지만 부활절 연기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교회력에서 정해진 날짜가 있는데, 부활절을 연기한다는 것은 사람이 교회 절기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오만에 불과하다. 부활절 연기 주장은 유아무야 사라지고 말았다.

중하다는 데 더 크게 공감하였다. 문제는 교회가 주일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 왜 이르렀는지 반성하는 목소리들이 작았다는 것이다. 단순히 감염병 때문이고, 정부의 행정명령 때문이라고만 생각하는 경향이 많았다. 그러나 교회와 목회자들에게는 예배를 못 드리게 되는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하나님이 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셨을까? 에 대한 숙고가 필요하다.

교회마다 특별한 절기가 되면 성찬식을 진행한다. 부활절이 되면 성찬식을 하는데,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으므로 성찬식을 거행하기 어렵게 되었다. 어떤 이들은 온라인 성찬을 거행하자고 주장하였다. 이 역시 반대에 부딪혔다. 온라인 성찬식으로 과연 성찬의 의미를 누릴 수 있겠느냐는 의견이다. 하지만 온라인 예배가 가능하다면 온라인 성찬도 가능할 것이라는 예배학자들의 의견이 있었다. 결국 온라인 부활절 예배와 온라인 성찬식을 거행하는 교회들이 상당수 있었다.

사실 그동안 예배는 컨셉과 콘텐츠 위주로 사람의 감정을 고양시키는 사례가 매우 많았다. 예배의 원적인 영과 진리의 예배보다는 예배를 고안하고 구성하며 청중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예배가 진행되었다. 예배 사역자들의 활동으로 예배는 점점 더 인위적이 되었다. 그리고 예배에서 감성을 자극할수록 참여인원이 더 많아졌다. 교회는 예배의 부흥이라는 명분으로 예배사역자들을 더 잘 키웠다. 물론 예배 사역이라는 개념을 부정할 수 없으나 예배의 인위적 조치가 실행되었음도 부정할 수 없다.

한국교회는 전통적으로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렸다. 부활절 연합예배를 위해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성도들이 모여 부활을 기념하고 예배를 드렸다. 그런데 코로나 19로 인해 부활절 연합예배를 연기하지는 주장도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 19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부활절 연합예배 연기는 동력을 잃었다. 무기력으로 연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대표자들만 예배당에 모여서 거리를 유지한 채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렸다. 부활절 헌금 중에서 따로 떼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자고 결의했는데, 결산 후에 돕는 액수도 매우 미미한 수준이었다.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보고 계신다고 믿는가? 만약 예배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고 사람들 더 모이기 위한 예배라면 그 예배를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겠는가? 성전 문지방만 밟는 구약의 모습이 오늘날에도 일어나지는 않는 것인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예배의 소중함, 예배의 본질 회복을 위해 코로나19로 교회를 각성시키려는 목적을 가지신 것은 아닐까? 단순히 모이는 예배 즐기는 예배가 아닌 예배 자체를 귀하게 여겨야 하지 않겠는가?

부활절 예배는 현장예배를 주저하는 교회들에게 현장 예배를 재개하는 명분이 되었다. 다른 때는 온라인 영상예배를 드려도 부활절은 특별한 날이니만큼 현장예배를 드리자는 주장이었다. 미디어에서는 예배 강행이라는 말로 교회를 비난하였다. 전염병이 더 퍼지고 집단 감염이 될까 두려워하는 주장도 있었다. 일부 교회는 반대를 무릎 쓰고 부활절 예배를 강행하였다. 물론 철저한 방역과 거리두기를 시행하는 예배였다. 다행히 부활절 예배로 인한 감염의 확산이 나타나지 않았다.

몇몇 목회자와 신학자 중에는 차제에 예배 패러다임을 전환하자고 주장한다.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것은 현재를 부정하고 새롭게 나아가자는 말이다. 전환하지는 주장의 내용을 듣다보면 과거의 방법처럼 인위적으로 예배를 꾸미기보다는 내용으로 흐른다. 이것은 패러다임 전환이 될지는 몰라도 예배의 본질 회복은 아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 2020년 코로나19 감염사태는 교회에서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계기가 되었다. 온라인예배를 찬성하는 목회자조차도 모이는 예배가 소

중하다. 우리는 예배의 본질을 변하지 않는다. 우리는 예배의 본질을 되찾아야 한다. 예배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모든 의도는 반드시 배격되어야 한다. 패러다임 전환이든, 예배의 부흥이든 그것은 예배의 본질에 비해 더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믿음이 중요하다. 현장예배든 온라인 영상예배든 방법론이 중요하지 않다. 예배의 본질 회복이 훨씬 더 중요하다. <끝>
kcdc1217@hanmail.net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합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마지막 정성에 함께 보낸 31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모든지점 - 대형 파란장 운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프란시스코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워싱턴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팬더믹 시대의 선교 ... 어떻게 하고 있나?

(3) 남가주 밀알선교단 단장 이종희 목사

장애인들에게 더 어려운 비대면 프로그램...인내와 성숙의 터널 지나

남가주밀알선교단(단장 이종희 목사)은 지역사회 속에서 장애인을 위한 전도와 봉사, 계몽을 위해 설립돼 지금까지 쉽지는 않았던 사역을 이어오고 있다. 동 선교단 역시 작금의 팬더믹 상황을 만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피할 수 없으나 모든 스텝들과 사역자들은 함께 몸부림치며 사역을 이어오고 있다. 이에 이종희 목사와 서면 인터뷰를 통해 선교단 소식을 들어보았다.

코로나19로 모든 오프라인 예배 및 사역 중단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장애인들과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도와주며, 지역사회와 교회를 향하여 장애인선교의 중요성을 알리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이종희 목사.

팬더믹 상황이 오기 전까지 밀알선교단은 선교적 교회 예배 신앙공동체를 꿈꾸면서 매주 화요일(LA)과 목요일(OC) 장애인들과 봉사자가 예배를 드리고 매월 마지막 화요일(월 1회)에는 밀알선교단, 나눔선교회, 종려선교회와 연합으로 “밝은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특히 이 밝은 예배에는 지역교회를 초청하며 친교와 말씀으로 도전받고, 더 나아가 지역교회와 밀알 등 장애인 사역현장의 모습 가운데 서로 소통해왔다.

또한 토요일에는 6지역(LA, ELA, OC, Torrance, Irvine, Santa Fe Springs)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사랑의 교실(Class AGAPE)’을 운영해왔다.

뿐만 아니라 매년 6월말쯤에는 2박3일 동안 남가주 지역 장애인 사역 교회들과 연합해 남가주, 북가주 밀알이 ‘사랑의 캠프’를 진행했는데 약 400여명이 참가하는 축제와 같은 캠프였다. 하지만 올해 CSULB(롱비치대학교)에서 진행 예정이었던 캠프는 Covid19로 인하여 취소해야 했다.

단장 이종희 목사는 “매월 말 일 경이면 다음 달 상황에 대한 공지를 하고 있는데, 3월부터



단장 이종희 목사

지금까지 오프라인예배 중단인 내공문을 5번이나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실 앞으로는 당분간 더 보내야 하는 현실을 생각해 보면서 마음이 무겁고 안타까울 뿐입니다”라고 안타까움을 토로한다.

온라인 예배와 프로그램 진행

그러나 모든 것에서 손을 놓을 수가 없었다. 밀알선교단은 현 상황에 맞게 온라인으로 예배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사랑의교실은 브랜치 상황에 맞게 Zoom을 통해, 때로는 Drive-Through를 통해서 서로가 소통하고 있다.

장애인 참가자가 대면해 프로그램을 진행하기가 어렵기에, 봉사자들이 가이드라인을 지키면서 미리 한주간의 크래프트 등 장애인 참가자들이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고, 장애인 참가자와 부모님이 정해진 시간에 Drive-Through로 방문하면 각 지정 장소에 따라 창문을 열고 서로 인사하고, 크래프트를 나누고, 준비한 생필품 등을 전달하는 등의 방식으로 OC 사랑의 교실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밀알이 주로 섬기고 있는 발달장애인들의 특성상 서로 대면하고, 스킨십도 하고, 오감을 통한 소통이 필요한데, 현재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 많은 밀알장애인 참가자가 힘들어 하는 것도 현실이다.

‘밀알 사랑나누기 프로젝트’

이처럼 어려운 상황을 만났지만 결코 사역을 포기할 수 없다는 이 목사는 “학교나 일반 생활에 있어서 비대면(Untact) 상황이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인들에게는 더욱 익숙지 않은 상황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신체 장애인들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장애인분들에게 있어서 Covid19의 현실은 때로는 생사가 걸린 문제로 다가오기도 하

인 친구들과 가정들도 여러 상황들을 잘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는 바람도 크다.



LA지역 밀알사랑나누기 사역을 시작하며 기도하고 있다

사랑의 교실은 Zoom과 Drive-Through 통해 소통 지속 ‘밀알 사랑나누기 프로젝트’로 각 가정에 맞는 돌봄 제공

고, 정말 육체적 정신적 정서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밀알도 장애인 가정의 어려운 상황을 잘 파악해 각 가정에 맞는 돌봄을 제공하려고 ‘밀알 사랑나누기 프로젝트’ 등 다양한 사역들을 몸부림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라고 새로운 모양의 사역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코로나 시대가 뉴노멀(New-Normal)로 진행되는 시기에 장애인들과 밀알공동체가 이러한 상황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돼야 한다. 특히 발달장애

‘ZOOM 소통’, 가족의 도움이 필수

Zoom으로 소통하는 경우도 발달장애인 친구들은 보통 가족 중 누군가가 도와줘야만 접속하며 계속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 장애 정도가 경미해 혼자 접속하고 소통하는 경우는 극히 적다.

이 문제는 단지 밀알공동체만의 과제는 아닐 것이라고 말한다. 교회와 선교단체를 비롯한 다양한 선교현장과 신앙공동체가 이러한 시국에 어떻게 패러다임 쉬프트를 할지, 신앙

으로 하나 되게 해야 할 것이며, 밖으로는 세상을 향해서도 이러한 팬더믹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 교회와 가정, 개인의 정체성과 존재이유를 깨닫고, 온라인예배와 줌미팅, 언택트 상황 하에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들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활대가 더욱 펼쳐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희 목사의 결론: 모두가

함께 겪는 위기...하나님의 뜻 헤아려야

교회, 비즈니스, 개인 모두가 힘든 시기이고 동시에 위기일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때 더욱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조용히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공동체적으로 나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동안 사역가운데 가장 본질적인 사역들을 팬더믹 속에서 뉴노멀이 된 현 상황에 가장 잘 적용할 수 있는 방향과 방법과 내용들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 속에 공동체 구성원들과 세상이 더욱 축복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 선교적 교회는, 신앙공동체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며,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잊지 말아야 한다.

확실한 대안을 제안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지금은 우리 모두가 과정 속에 있다고 생각한다. 각 공동체 몸부림치는 모습이 조만간 정리돼서 교회는 교회대로, 선교현장은 선교현장대로 하나님께서 팬더믹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며, 인도하셨는지를 속히 볼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우리 모두가 인내와 성숙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고 생각한다.

터널이 꽤 긴 것 같다. 하지만 곧 속히 끝이 보일 것이라고 믿는다.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시기에 우리 모두 잘 이겨낼 줄 믿는다. 그리고 고개를 살짝 둘러 옆을 보면(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걷는 것 자체를 힘겨워하면서 최선을 다해 한발 한발 걷고 있는 장애인 친구들과 소외된 이웃들, 어르신들이 보일 것이다. 함께 걸어가자고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여러분의 용기와 결단을 촉구하며 부탁한다.

▲연락처: (562)229-0001 (이성자 기자)

소망소사이어티...

(10면에서 계속)

다양한 우려를 해소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CARE의 목표는 알츠하이머 및 관련 치매와 노화, 간병 및 일생의 건강관련 연구 등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연구에 참여를 원하는 아시아계 미국인 및 태평양 섬 원주민의 연구 레지스트리를 만들으로써, 이들의 연구 참여에 있어서의 불공평한 차이를 줄이고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CARE는 UCSF, UCI, UC Davis 및 California 주요 지역의 커뮤니티

파트너들과 함께 문화적으로 적절하면서 혁신적인 홍보 전략을 구현함으로써 소수계의 연구 참여 장벽을 극복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소망소사이어티는 CARE의 지역 자원위원으로서, 한국인의 연구참여를 위한 문화적 지침을 마

련할 예정이다. CARE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및 교육, 데이터베이스(레지스트리) 리쿠르팅 사이트는 소망소사이어티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UCI MIND(부서장: 조슈아 그릴 박사)이다.

유분자 이사장은 "소망소사이

어티는 UCI MIND를 통해 CARE 레지스트리의 개발 및 커뮤니티 참여에 대한 전반적인 지침 및 피드백을 제공하게 된다. 한인커뮤니티에서는 CARE 레지스트리에 등록함으로써 아시아계 미국인 및 태평양 섬 원주민 커뮤니티 목소리에 힘을 실고,

향후 연구에 참여할 수 있다”며 한인커뮤니티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CARE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CARE 홈페이지(<https://careregistry.ucsf.edu/ko/home>)에서 알아볼 수 있다.

(기사제공: 소망소사이어티)

세계한인기독교언론협회 주최

제6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

해외 한인 크리스천들이 양질의 신앙도서를 읽고 믿음과 삶, 그리고 사역이 보다 영적으로 성숙해 가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본 언론협회는 제6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많이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한국을 제외한 해외 거주 한인 평신도, 목회자, 선교사, 사모 등
- 방법: 추천도서 5권중 한권을 선택하여 읽은 후 독후감을 제출하여 분량은 레터 또는 A4 사이즈 3페이지(글자크기 10포인트, 줄간격 160%)이며 제출 마감은 2020년 10월 31일 오후 5시 (미 서부시간 기준)
- 제출처: 이메일 wkcmmailbox@gmail.com으로 제출하되 응모자의 이름, 직분, 출석교회, 전화번호, 거주지 주소를 꼭 명기해 주십시오
- 시상: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을 11월 15일경 발표합니다. 이들에게는 상장과 함께 각각 US \$500, \$300, \$200씩의 부상이 전달되며 선정된 독후감은 본 협회 회원사들의 지면 및 인터넷 신문과 방송을 통해 발표됩니다. 시상식은 12월 초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립니다.

* 참가자 전원에게는 참가상이 주어집니다
* 이미 수상 경력이 있으신 분은 3년 동안 수상대상에서 제외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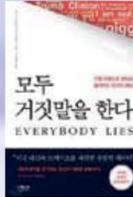
주최: 세계한인기독교언론협회 (회장 조명환 목사)

World Korean Christian Media Association

추천 도서



자유로운 영혼의 노래를 부르며
신영, 시와정신사



모두 거짓말을 한다
세스 스태튼 매드워즈 데이스



침묵
앤드 슈사쿠 흥성사



말그릇
김윤나 카시오페아



똑똑한 사람들의 멍청한 선택
리처드 탈러, 리더스북

회원사

남미복음신문(상파울, 브라질), 미주기독교방송(LA, 미국), 미주기독교신문(시애틀, 미국), 미주복음방송(애나하임, 미국), 미주크리스천신문(뉴욕, 미국), 아멘넷(뉴욕, 미국), 유럽 크리스천신문(프랑크푸르트, 독일), 크리스찬 저널(시카고, 미국), 크리스찬 투데이(LA, 미국), 크리스찬 리뷰(시드니, 호주), 크리스찬 미디어(시애틀, 미국), 크리스천 위클리(LA, 미국), 크리스천 타임스(샌프란시스코, 미국), CHTV 크리스천 헤럴드(LA, 미국)

후원

기독교서점협회(회장 전인철 목사)
기독교서적 323-737-7699 www.koramdeo.com
두란노서원 213-382-5400 www.duranno.us
말씀사 714-530-2211 www.lifebook.co.kr
베델서적 949-854-9191 bethelbook@hotmail.com

복음사 562-865-4949
도르가 서점 714-636-7430